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여성의 주체성:

토마스 하디의 『캐스터브리지의 시장』 연구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전공

김 은 비

여성의 주체성:

토마스 하디의 『캐스터브리지의 시장』 연구

지도교수 조 선 정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전공

김 은 비

김은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위 원 장 유 명 속 (인)

부위원장 손 영 주 (인)

위 원 조 선 정 (인)

국문초록

이 논문은 토마스 하디의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의 여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제인에 주목하여 여성의 주체성과 자아실현을 연구한다. 하디는 빅토리아 시대의 수동적이며 순응적인 전통적 여성상에 머물러있지 않고 아버지를 찾고 로맨스를 성취하며 자아를 확장해가는 여주인공을 창조했다. 가부장제 체제의 한계 속에서도 여성의 독립과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서 엘리자베스 제인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읽기를 시도한다.

1장에서는 엘리자베스 제인이 아버지 찾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며 자신의 계보를 찾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 살펴본다. 부모를 찾는 문제는 곧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다. 여주인공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그녀는 분별력 있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한다.

2장에서는 엘리자베스 제인과 파프레 사이에서 벌어지는 로맨스의 전개방식을 다룬다. 로맨스를 이루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제인은 여성성을 거부하거나 성적 욕망을 억압하는 관습을 넘어서야 한다. 로맨스의 좌절은 엘리자베스 제인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며 로맨스의 성취는 그녀가 욕망하는 여성주체임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과 이동성을 탐구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은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캐스터브리지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 캐스터브리지의 많은 공간을 거쳐 가면서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방인이었던 그녀는 캐스터브리지에서 독립적인 삶을 꾸린 여성이 되며 시장의 아내로 그 중심에 서게 된다.

하디는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을 통해 빅토리아 시대 여성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겪는 제약과 고통을 묘사하는 한편 젊은 여성인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을 선택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관습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근대성의 씨앗을 담고 있는 여성주인공을 형상화한다.

주요어 : 토마스 하디, 『캐스터브리지의 시장』, 엘리자베스 제인, 여성, 주체성, 독립, 로맨스, 몸

학 번 : 2015-20047

목 차

국문 초록	i
서 론	1
1. 아버지의 부재와 아버지 찾기	13
2. 로맨스의 욕망과 결혼의 의미	32
3. 여성의 몸과 이동성	54
결 론	75
인용문헌	79
Abstract	82

서론

토마스 하디(Thomas Hardy)의 『캐스터브리지의 시장』(*The Mayor of Casterbridge*)은 주로 마이클 헨처드(Michael Henchard)라는 남성주인공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 이 작품의 부제인 ‘기개가 있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A Story of a Man of Character”)¹⁾는 헨처드의 중심인물로서의 위치를 명확히 제시한다. 하디 역시 서문에서 이 작품을 “한 남자의 행위와 성격에 대한 연구”(a study of one man’s deeds and character, 3)²⁾라고 언급한 점에서 헨처드가 핵심인물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월터 앨런(Walter Allen)은 “하디의 다른 소설들 중 그 어떤 등장인물들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마이클 헨처드가 소설을 지배하고 그가 곧 그 소설”(Michael Henchard dominates the novel, is the novel, to an extent unparalleled by any character in Hardy’s other fiction, 332)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평가들은 특히 성격비극(character tragedy)의 측면에서 이 작품을 논의해왔는데, 패터슨(John Paterson)과 같은 비평가는 헨처드를 고전비극의 주인공 반열에 올리며 비극의 시초가 된 그의 아내 매매 행위를 오이디푸스나 리어왕의 비극에 버금가는 행동으로 파악했다.

헨처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에 비해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디의 여성인물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저서로 패니 부멜라(Penny Boumelha)의 『토마스 하디와 여성』(*Thomas Hardy and Women*)과 로즈마리 모건(Rosemarie Morgan)의 『토마스 하디 소설의 여성과 섹슈얼리티』(*Women and Sexuality in the Novels of Thomas*

1) 본디 “a man of character”는 관용적으로 ‘인격자’나 ‘기개가 있는 사람’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나 여기서는 ‘독특한’ 혹은 ‘강한 성격을 지닌 남성’, ‘성질 있는 남성’과 같이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번역은 필자의 것을 바탕으로 이윤재의 역본을 참고하였다.

Hardy)가 꼽히는데, 아쉽게도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은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 논문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억압과 그에 대항하는 면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후 하디가 창조한 강력한 여주인공들의 원형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디의 여성론 비평은 크게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갈래의 비평가들은 “여성인물들의 성격과 행동범위가 보수적인 관점에 갇혀있음”(entrapment in conventional views of women’s character and sphere of action)을 비판하고 “여성에 대한 하디의 특별한 관심과 연민”(his particular interest in and sympathy with women, Boumelha 2)에 주목했다³⁾. 두 번째 갈래의 대표적인 비평가인 패트리샤 잉엄(Patricia Ingham)은 하디가 후기 소설에 이르러서는 다른 형태의 여성성을 수용할 준비가 된 작가들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이상적인 여성스러운 여성”(the ideal womanly woman)과 그 반대인 “타락한 여성”(the fallen woman), 그리고 “신여성”(the New Woman, 140)을 재창조한 작가였음을 지적한다.

잉엄의 주장처럼 하디는 당대의 정형화된 여성상에 매여 있지 않은 다양한 여성인물을 창조하려 시도하였으며 그의 마지막 소설인 『무명의 주드』(*Jude the Obscure*)에 등장하는 아라벨라 던(Arabella Donn)과 같이 “활동적이고 힘이 넘치며 피바르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마음껏 드러내는”(active, robust, resourceful, and at ease with herself and her own sexuality) “새로운 유형의 타락한 여성”(New Fallen Woman, Ingham 147)을 고안해 냈다. 또한 『주드』의 수브라이드헤드(Sue Bridehead)는 하디가 창조한 여성인물 중 가장 “독특한 종류의 자주성”(autonomy of a distinctive kind, 150)을

3) 하디의 작품에 등장하는 성적 관념과 여성인물을 연구한 부멜라는 “첫 번째 주장은 여성 비평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며, 두 번째는 남성 비평가에서 주를 이룬다”(women predominate among the first group, and men among the second, 2)고 지적한다.

주장하며 인습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여성인물들을 만들어가기까지 하디는 이전 작품에서 다양한 실험을 선보인다. 특히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에 등장하는 루세타(Lucetta)의 적극적이고 재기 넘치는 면모는 『쥬드』의 아라벨라 던을 연상시킨다. 단순히 남편감을 찾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기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이는 엘리자베스 제인(Elizabeth-Jane)은 수브라이드헤드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 이와 같이 하디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의 여성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디는 여성의 경제적·성적·심리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당대 사회의 변화 과정을 직접 겪으며 갈등하는”(장정희 41) 여성의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전형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난 여성인물들을 그렸다는 점에서 그의 여성인물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논문은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의 주요 여성인물인 엘리자베스 제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캐스터브리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고 헨처드와 수전(Susan), 루세타와 파프레(Farfrae) 등 모든 주요인물과 관계를 맺으며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소설의 많은 부분이 그녀의 눈을 통해 서술되므로 엘리자베스 제인을 분석하는 작업은 캐스터브리지라는 공간과 여성을 바라보는 하디의 시각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에 나타난 하디의 여성론적 인식을 본격적으로 다룬 일레인 쇼월터(Elaine Showalter)는 수전과 엘리자베스 제인, 루세타, 밀죽 파는 여인(furimity-woman)의 캐스터브리지로의 귀환이 헨처드의 억압되었던 여성적 자아의 회귀이며, 그가 남성적 가치인 돈, 명예, 부권을 잃어가는 대신 “관찰하는 능력과, 집중력, 감수성, 연민”(skills of observation, attention, sensitivity, and compassion, 114)과 같은 여성적 가치를 배워간다고 해석한다. 자신의

“여성적” 자아를 부정하고 분리하려는 노력과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양성하려는 헨처드의 노력은 “자아 발견과 비극적인 상처를 향해 가는 움직임인 ‘남성성을 잃어가는’ 여정”(a pilgrimage of ‘unmanning’ which is a movement towards both self-discovery and tragic vulnerability, 102)을 수반한다고 쇼월터는 주장한다. 헨처드가 여성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남성적 개인주의를 버리고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간다는 쇼월터의 논의는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의 여성론적 비평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나 여성인물들 각각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기보다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도구적 존재로 묘사하는 한계를 내포한다.

하디가 여성을 문학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평의 한 예로, 쇼트(Clarice Short)는 하디가 자신의 주요 작품에서 인생의 불행 중 많은 부분을 여성인물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이들이 “생명력을 위한 도구”(tools of the life force)이자 “남성의 파멸의 원인”(the causes of men’s destruction, 50)으로 동원된다고 말한다. 쇼트는 하디의 작품에서 여성의 존재가 남성주인공의 변화나 깨달음의 발판으로 기능함을 지적한다. 여기에는 여성이 남성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제시될 가능성 또한 깔려있다.

여성을 남성의 시각에서 재현하거나 도구로 이용했다는 입장에 대해 엘리자베스 브론펜(Elisabeth Bronfen)은 몸이 교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징표”(token)나 “기표”(sign)로 전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하디가 작품을 통해 묘사한다고 반박한다. 하디는 몸을 기표로 혼동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설명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교환하는 것과 교환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형태를 작품 속에 차용한다. 하디의 작품 세계에서 여주인공의 몸은 “가장 두드러지게 교환되고 각인되며 응시의 대상이 되고 판독되고 모방되며 대체되며 결국 무언가 다른 것으로 교체”(most conspicuously exchanged,

inscribed, gazed at, deciphered, imitated, substituted for and ultimately replaced by something else, 67)된다는 것이다.

로절린드 마일스(Rosalind Miles)는 하디가 여성을 “약함과 강함, 연약함과 고통을 수용하는 능력, 감내해야 할 많은 것들을 인내하는 조합물”(combination of weakness with strength, fragility with capacity for suffering, endurance with so much to endure)로 재현했기 때문에 “여성을 소설적으로 이용”(used women, fictionally, 38-39; 원문 강조)했음을 지적한다. 여성은 엄청난 고난을 감내하는 인물로 형상화되며 “이들의 고통은 개인적인 지점을 초월하여 인간과 숭고함의 영역으로 넘어”(whose inflictions transcend the personal and move through human to sublime)가지만 남성인물은 그만한 아픔을 겪지 않는다.

마일스의 지적처럼 엘리자베스 제인에게는 처음부터 선택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으며 많은 고난을 겪는다. 그러나 이 논문은 엘리자베스 제인이 인내하는 여성상에 갇혀있지 않고, 제한된 이동성과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주체성을 이루어 가는지 살펴본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는”(accomplishes nothing, for himself or for others, Bloom 8; 원문 강조) 헨처드와 달리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의 주요여성인물인 엘리자베스 제인은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독립과 자신이 선택한 남성과의 결혼을 성취한다.

하디가 여성을 도구로 인식했다는 비평에서 탈피했다는 점에서 파멜라 제켈(Pamela Jekel)의 논의는 이 논문에 매우 시사적이다. 제켈은 하디가 “복잡하며 독립적이고 성적이며 심지어는 영웅적인 여주인공들”(heroines who are complex, self-contained, sexual, and even heroic, 1)을 창조했다고 본다. 제켈은 『토마스 하디의 여주인공』(Thomas Hardy's Heroines)에서 한 장을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할애하여 비평사에서 독보적으로 그녀를 여주인공으로 적극 평가한다. 제켈은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은 마이클 헨처드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헨처드의 역사는 사실상 엘리자베스 제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이 소설의 ‘유일한 여주인공’”(the “only heroine” of this novel)은 엘리자베스 제인으로, “하디의 삶에 대한 시각을 가장 꼼꼼하게 구성하고 규정한다”(most closely constitutes and defines Hardy’s view of life, 131)고 말한다.

이 논문은 엘리자베스 제인이 소설의 모든 인물들 중 “가장 명확한 시각”(the clearest vision, 142)을 가졌으며 “현실에 대한 저자의 시점을 공유”(sharing her author’s view of reality, 131-32)한다는 제켈의 논의와 결을 같이하지만, 엘리자베스 제인의 통찰력은 처음부터 그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고 로맨스를 이루며 캐스터브리지 내의 다양한 장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됨을 밝히려 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하디의 관점을 제일 잘 대변하는 모범적 인물임은 널리 합의된 바이며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의 옥스퍼드 판 서문을 쓴 달지엘(Pamela Dalziel)은 “그녀를 소설의 여주인공으로 보지 못할 명백한 이유는 없다”(There is no obvious reason why she should not be seen as the novel’s heroine, xxix)는 입장을 밝힌다. 흥미롭게도, 하디가 처음 그래픽(Graphic)에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을 연재했을 때 등장하는 엘리자베스 제인은 현재의 엘리자베스 제인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녀는 헨처드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고 황소와 겨루며 자신의 분노를 정정당당하게 표출하는 등 더 강인하고 독립적인 모습이었으나 현재 정본으로 발행되는 1886년 스미스, 엘더 판본(1886 Smith, Elder Edition)에서는 훨씬 더 보수적이고 온건한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래픽 판의 엘리자베스 제인은 “여성다운 점잖음의 모범이

아니며”(no model of womanly decorum) 현재의 엘리자베스 제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혈기왕성한 젊은 여성”(a much more complex and feisty young woman, xxix)이다. 그녀는 헨처드의 부당함에 “나의 미천함이 다른 이들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인데 내가 왜 천하다고 불려야 하는 거죠”(Why should I be called low, when my lowness is of other people’s making?, 242.2)라고 대항하고 공공도로에서 파프레가 자신에게 키스하는 것을 허락하며(510.3) 헨처드 몰래 뉴슨을 비밀리에 만난다(511.2). 헨처드가 뉴슨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 . . 이제 됐어. 그는 나쁜 사람이야. 이제는 그에 대해 잊어버릴 수 있어. . . . 나는 절대 그를 용서할 수 없어. 그가 떠나서 차라리 잘됐어.”(what a bad man! . . . That’s enough. He’s a bad man. I can forget him now. . . . I can never forgive him, and I’m glad he’s gone, 511.2)라고 말하면서 떠난 헨처드를 욕한다. 그녀는 1886년 판본의 엘리자베스 제인으로서는 상상도 못 할 만큼 뚜렷한 감정선을 지닌 여성으로 묘사된다.

가장 큰 수정은 바로 엘리자베스 제인의 결혼식 날 그녀가 헨처드를 “헨처드 씨”(‘Mr. Henchard’, 539:2)라고 부르면서 “쌀쌀맞게 등을 돌리는”(coldly back) 장면이 통째로 삭제된 점이다.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을 내가 증오하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겠어요?”(how can I do anything but *hate* a man who has served me like this!, 539:3, 원문 강조)라고 매섭게 쏘아붙이는 엘리제베스 제인은 우리가 알던 점잖고 순종적인 엘리제베스 제인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그녀가 단순히 황소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황소의 고삐에 달린 지팡이를 잡고 용맹하게 맞서 싸우는 장면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루려 한다.

달지엘은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의 젠더 다시 보기」 (“Whatever Happened to Elizabeth Jane?: Revisioning Gender in *The Mayor of*

Casterbridge)에서 그래픽 판의 엘리자베스 제인은 “의심의 여지없이 고결하지만”(unquestionably virtuous) “감정적인 충동”(emotional impulse)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고 말한다. 그래픽 판본에서 엘리자베스 제인은 루세타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받은 편지를 파프레에게 맡겨버린다던지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일생을 말하거나 하이 플레이스 홀을 허락도 없이 거니는 등 충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달지엘은 엘리자베스 제인의 “즉흥적이고 비(非)인습적인 모습”(spontaneous unconventionality)이 거의 지워진 현재 판본에서는 “진부한 여성다움”(stereotypical womanliness)만 남아있지만 그녀가 “더 똑똑하고 잘 교육받았으며”(more intelligent and better educated, 80) “특출한 존재”(an exceptional being, 81)로 “소설의 여주인공역을 맡을 자격이 있다”(worthy of her role as the novel’s heroine)고 평한다⁴⁾.

하디가 엘리자베스 제인을 “따분하고 올바른 인물”(a dull and proper character, xxix)처럼 보이도록 수정한 이유는 “순종적이고 정숙한 여성”을 이상으로 삼았던 빅토리아 시대의 독자들을 의식해서이지만 그는 평단의 부분적인 호평으로만 만족해야 했다. 스코츠맨(*Scotsman*)을 비롯한 신문이나 잡지 기사들이 엘리자베스 제인의 “순수함, 소박함, 여성적 인내”(purity, simplicity, and womanly endurance, 24 June 1886)를 칭송하는 반면 다른 한 쪽 평단은 그녀의 “불쾌하게 냉담한 시각”(unpleasantly cold-blooded view, *Guardian* 28 July 1886)을 지적하며 “조심스럽게 억제된 어조가 그녀를 다소 지루해 보이도록 만든다”(the carefully subdued tone of the character makes it seem a little tame, *Spectator* 5 June 1886)고 혹평했다.

4) 달지엘은 그래픽 판의 엘리자베스 제인은 “하디의 다른 활력 넘치고 인습적이지 않은 여주인공들”(Hardy’s other spirited, unconventional heroines, 82)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용기와 적극성은 “‘여성적인’ 성향과 ‘남성적인’ 성향을 연합하는 능력”(ability to unite ‘feminine’ and ‘masculine’ characteristics)을 지닌 가브리엘 오크(Gabriel Oak)나 디거리 벤(Diggory Venn)과 같은 인물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논한다.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의 그래픽 판본 삽화를 담당한 반스(Robert Barnes)의 그림에 형상화된 방식으로 여성인물들을 수정한⁵⁾ 하디는 당대 독자층과 비평계의 인정을 얻기 위해 일종의 타협을 하였으나 이 수정 자체가 여성성에 대한 하디의 고민을 반증한다. 여성인물들에게 가해진 변화의 역사와 그 중 하디가 여주인공의 독특한 기질을 포기하고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순화시킨 점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여성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수정을 살펴봄으로써 하디가 빅토리아 시대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성상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하디가 엘리자베스 제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활력 넘치고 개성 있는 면은 표면적으로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전 판본만큼은 아닐지라도 위험에 기꺼이 도전하는 강인함과 용기,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표명하는 모습은 현재 판본의 엘리자베스 제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5) 하디의 그래픽 판본에 등장하는 수전은 “존재감이 없으며”(invisible, Dalziel 68) “중산층의 ‘숙녀다움’”(middle-class ‘womanliness’)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하디는 특히 그녀의 이른 죽음을 “타락한 여성”(fallen woman)과 연관 지으며 그녀의 “볼품없는 외모”(physical unattractiveness)를 강조한다. 한편 반스가 그린 삽화에서 수전은 “명백하게 매력적이며”(unambiguously attractive) “그녀의 다양한 표정”(her various facial expressions)은 “강렬한 감정”(powerful emotion)과 “타고난 위엄”(innate dignity)을 담고 있다. 반스가 그린 수전은 “한결같이 매력적이고 일관되게 숙녀다우며”(consistently attractive, consistently womanly) 독자들로 하여금 “완전히 공감을 자아내는 등장인물”(an entirely sympathetic character, Dalziel 69)이다. 1886년 판본에서 하디는 수전의 “무가치함과 단순함”(negligibility and simplicity)을 줄이고 반스가 묘사한 수전과 더 유사한 모습으로 바꾼다.

1886년 판본으로 넘어가면서 루세타에게 가해진 “광범위한 개정”(extensive revision, Dalziel 70) 역시 반스의 그림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에서 루세타는 “명백하게 ‘숙녀답지 않으며’”(distinctly ‘unwomanly’) 심지어 “부도덕”(immoral)하기까지 하지만 1886년 판본으로 넘어가면서 하디는 반스의 그림에 등장하는 루세타와 유사하게 “독자들이 더 공감하도록”(seem more sympathetic to his readers, Dalziel 72) 그녀를 수정한다.

루세타가 자신의 연애사를 간접적으로 말하며 과거의 남자와 현재의 남자 중 누구를 선택해야할지 묻는 상황에서도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힌다. 순종적인 여성상에 매여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당당히 할 줄 아는 여성이다. 이 논문은 엘리자베스 제인이 단면적인 모습을 지닌 전통적인 인물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를 찾고 로맨스를 성취하며 삶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자아실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여성상은 아니지만 하디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을 창조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녀는 학문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주체성은 캐스터브리지로 와 헨처드를 찾으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된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끊임없이 탐구하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자아정체성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아버지인 뉴슨의 실종과 어머니인 수전의 재혼과 죽음을 경험하고 먼 친척으로 알고 있던 헨처드가 자신의 친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며 뒤이어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헨처드의 냉담함을 피부로 느낀다. 그녀는 루세타의 도움으로 인해 헨처드로부터 독립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는 듯한 루세타의 태도를 보며 또 한 번 혼란을 겪는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자신이 연모했던 파프레와 친구인 루세타의 결혼 소식과 이후 등장하는 루세타의 죽음은 엘리자베스 제인을 실의에 빠뜨리기에 충분하지만 그녀는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차분하게 처신한다. 그녀는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두려움에 떨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에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동한다. 아무런 기반 없이 캐스터브리지에 왔던 소녀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와 남편을 선택하고 자아실현과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여성으로

성장한다.

하디의 여성인물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져왔으나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의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는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여지가 많다. 이 논문에서는 이 작품을 엘리자베스 제인의 서사로 읽는 작업을 시도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아버지 계보 찾기’와 ‘자아정체성 찾기’라는 두 가지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인물이다. 이 두 과업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엘리자베스 제인은 작품의 결말을 이끄는 여성주인공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녀는 테스나 수 브라이드헤드만큼 강력한 여성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제인의 의식이 서사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눈으로 서술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과 그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는 그녀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빅토리아 시대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이 직접 아버지와 배우자를 선택하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모습은 새로운 면모의 여주인공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1장에서는 엘리자베스 제인이 아버지 찾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며 자신의 계보를 찾아나서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려한다. 부모를 찾아 나서는 문제는 곧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다. 여주인공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그녀는 분별력을 얻게 된다. 그녀를 향한 숨겨진 진실은 헨처드가 친척일 뿐이라는 수전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된다. 자신이 진짜 아버지라는 헨처드의 말과 이것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된 후에도 사실을 은폐한 채 그녀에게 휘둘러지는 그의 학대와 변덕, 진짜 아버지 뉴슨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는 헨처드의 행동을 인내하고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 엘리자베스 제인은 단련되어가며 강인한 주인공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2장에서는 엘리자베스 제인과 파프레 사이에서 벌어지는 로맨스의 전개방식에 주목하려 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신의 로맨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헨처드와 루세타라는 두 명의 인물의 방해를 넘어서야 한다. 또한 끊임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감추고 관찰자의 위치에 머무르려는 그녀 자신의 습성을 넘어서야만 파프레와의 결합을 이룰 수 있다. 계속되는 로맨스의 좌절을 통해 엘리자베스 제인은 여성으로서 겪는 시련을 감당하고 성장한다. 또한 로맨스 성취는 곧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행위로 연결된다.

3장에서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과 그녀의 제한된 이동성에 대해 연구하려 한다. 계속해서 성실함과 자기개발을 통해 발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과 삶은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작품 초반에 수전을 따라 캐스터브리지에 온 이후로 작품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생활반경은 철저히 캐스터브리지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은 캐스터브리지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활발히 이동하며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한다. 정체되어 있을 때에도 이동을 할 때에도 그녀는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캐스터브리지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1. 아버지의 부재와 아버지 찾기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은 결혼에 대한 남성의 경험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와 빅토리아 시대의 가부장적 인식으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을 다룬다.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아버지 찾기이며 이는 그녀가 아버지를 찾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선택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신원은 작품의 시작부터 불확실하며 그녀에 대한 정보는 불충분하다. 그녀 혹은 그녀의 부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짧은 옷에 뜨개질로 만든 푸른 부츠를 신은 아주 작은 소녀”(a tiny girl in short clothes and blue boots of knitted yarn, 6)로 소개될 뿐이다. 심지어 작품이 상당 부분 전개된 이후에 이 어린 소녀가 엘리자베스 제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수전이 죽기 전 헨처드에게 남긴 편지에서 그녀는 “엘리자베스 제인은 당신의 엘리자베스 제인, 그러니까 당신이 날 팔았을 당시 내 팔에 안겨 있던 아이가 아니야”(Elizabeth-Jane is not your Elizabeth-Jane—the child who was in my arms when you sold me)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그 아인 그 뒤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 지금 살아 있는 아이는 다른 남편에게서 얻었어”(she died three months after that, and this living one is my other husband’s, 117)라는 수전의 편지는 이후 엘리자베스 제인이 겪어나가야 할 곤경의 시발점이자 엘리자베스 제인의 아버지 찾기의 출발점이 된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된 헨처드는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녀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발견해가는 과업이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숙제로 주어진다.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나서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여정은 작품

초반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헨처드가 ‘아내매매’(wife-selling)를 통해 수전을 선원인 뉴슨에게 팔고 난 후 이를 후회하며 금주를 선언하자마자 등장하는 다음 장은 수전과 엘리자베스 제인의 행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열여덟 살이 된 “엘리자베스 제인의 진지하고 억제된 가슴속 욕망”(The desire—sober and repressed—of Elizabeth-Jane’s heart)은 “진정으로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indeed to see, to hear, and to understand)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박식해지고 더 이름 높은, 즉 그녀의 정의로는 ‘더 나은 여자’(a woman of wider knowledge, higher repute—“better,” as she termed it, 25)가 될 것인지가 엘리자베스 제인의 주요 관심사이다. 수전은 뉴슨이 바다에서 행방불명되자 “자신이 다시 자유로운 여자가 된 지금 순간”(the present moment, now that she was a free woman again)이 “엘리자베스를 상승시킬 필사적 노력”(a desperate effort to advance Elizabeth, 26)을 기울일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하여 딸을 데리고 캐스터브리지로 온다.

자신의 전남편과 재회하는 것을 망설이는 수전과 달리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자베스 제인은 적극적으로 헨처드를 찾아 나선다. 시장이 된 헨처드를 보고 “헨처드 씨를 만날 자신이 없어.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아냐. 그가 날 압도해! 내게서 그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사라졌어”(I don’t think I can ever meet Mr. Henchard. He is not how I thought he would be—he overpowers me! I don’t wish to see him any more)라고 외치는 수전을 설득하는 것도 엘리자베스 제인이다. 서술자는 엘리자베스 제인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만큼 다른 무언가에 흥미를 느낀 적이 없었다”(had never been so much interested in anything in her life as in their present position)고 서술한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과 수전을 격려하는 “코치”(coach, 33)로서의 역할을 즐기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혈통을 찾아나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록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자신과

연결된 핏줄을 찾아 끊긴 관계를 다시 잇는 행위는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자신의 일부를 발견해가는 일이다. 후에 병든 수전을 간호할 때 “예민한 영혼”(subtle-souled)의 소유자인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이 왜 태어났고 왜 방 안에 앉아 촛불에 눈을 깜빡이는지, 주위의 사물들은 다른 모든 가능한 형체에 우선해서 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why she was born, why sitting in a room, and blinking at the candle; why things around her had taken the shape they wore in preference to every other possible shape, 111) 스스로에게 묻는다. 다른 사물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을 품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와 존재이유에 대해 고민한다.

토마스 하디의 소설에 나타난 결손 가정을 주로 연구한 쉐펠트(Lois Bethe Schoenfeld)에 따르면 이 소설은 “해체된 가정이라는 주제에 대해 흥미로운 반전”(an interesting twist on the theme of fragmented families, 53)을 선보인다. 엘리자베스 제인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주어지는데 한 명은 진짜 아버지인 뉴슨이고 다른 한 명은 양아버지인 헨처드이다. 엘리자베스 제인과 헨처드는 소설의 주요 관계망을 형성하며 이는 “작품 속에서 유일하게 나타난 가족 관계로서 깊이 있게 다루어진다”(the only familial relationship presented in the novel that is dealt with in any depth). 이들의 관계는 네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로 헨처드가 엘리자베스 제인을 자신의 생물학적 딸이라고 믿는 반면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이 뉴슨의 친딸이라고 믿는 단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헨처드와 엘리자베스 제인이 서로를 생물학적 부녀관계라고 믿는다. 세 번째 단계에서 헨처드는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신의 친딸이 아님을 알게 되지만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이 헨처드의 친딸이라고 믿는다. 마지막 네 번째 관계에서는 서로가 생물학적으로 연관이 없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헨처드와 뉴슨, 엘리자베스 제인 세 사람의 관계는 얽혀 있으며, 헨처드를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마지막까지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과업으로 주어진다.

쇼월터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하디 비평가들이 간과한 것이 바로 헨처드의 “자식 매매”(the sale of the child, 103)이다. “부권은 이 작품에서 부부간의 사랑보다도 훨씬 중요한 주요 주제”(Paternity is a central subject of the book, far more important than conjugal love)이다. 헨처드는 “부모를 잃고, 이혼했으며 어머니나 누이, 아내나 딸도 없이 효과적으로 여성 공동체로부터 모든 관계를 단절한”(Orphaned, divorced, without mother or sisters, wife or daughter, he has effectively severed all his bonds with the community of women, Showalter 103) 상태로 캐스터브리지에 왔다. 그는 “새로운 아담이자, 다시 태어났으며 자기 창조적이고 홀가분한”(the new Adam, reborn, self-created, unencumbered) 모습으로 사회에 홀로 복귀한다. 아내와 딸의 처분은 남성의 사회적 성공에 여성이 방해물로 작용한다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아내를 팔기 전에 헨처드는 “사악한 아내 때문에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훌륭한 남자, 더 특별하게는 경솔한 조혼으로 전도유망한 많은 젊은이가 드높은 목표와 희망을 잃고 에너지가 고갈되는”(The ruin of good men by bad wives, and, more particularly the frustration of many a promising youth's high aims and hopes, and the extinction of his energies, by an early imprudent marriage, 9) 주제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그는 딸과 아내를 교환 가능한 경제적 매개체로 인식하며 이는 실제 이들을 유기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아내를 팔고난 이후 헨처드는 아내와 딸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혈통을 이을 자식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 그는 수전을 비난하며 “그녀가 아이를 데려갈 권리는 없어, 그 아이는 내 아이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아이를 데려가게 놔두진 않아!”(She'd no business to

take the maid- 'tis my maid; and if it were the dong again she shouldn't have her!, 15)라고 뒤늦게 외친다.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헨처드의 가부장적 의식은 이 대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헨처드가 파프레를 자신의 사업을 관리할 매니저로 고용할 때 그는 파프레가 자신의 후계자, 즉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다. 가족이 없는 헨처드는 파프레에게서 죽은 남동생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사업을 견고히 할 일꾼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파프레를 자신의 삶에 영입하려 한다. 파프레를 성공적으로 자신의 집에 안착시킨 후 그는 곧바로 엘리자베스 제인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다. “새 친구가 된 스코틀랜드 사람에 대해 열정적으로 들떠 있던 그의 관심은 이제 이 사건으로 무색”(His keenly excited interest in his new friend the Scotchman was now eclipsed by this event)해지고 파프레는 “자신의 고용주의 심기가 갑작스레 달라진 것”(the suddenness of his employer's moods, 66)을 의아해한다. 자신의 사업을 이을 양자와도 같은 존재로 파프레를 영입하자마자 헨처드는 진짜 자신의 혈통일 것이라고 믿는 팔아버린 딸을 되찾는다.

비록 아내와 딸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지만 헨처드는 뉴슨 양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신 그는 파프레에게 가족애를 대체할 친밀감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헨처드는 이 젊은이가 “사업을 의논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인생의 동지로도 바람직”(as desirable for comradeship as he was useful for consultations)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더욱 그에게 의지한다. 파프레와 헨처드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inseparables)로 서술되며 함께 걸을 때 헨처드는 “파프레가 마치 동생이나 되는 듯”(as if Farfrae were a younger brother, 85) 스스럼없이 팔을 그의 어깨 위에 얹는다. 결국 파프레가 헨처드로부터 나와 독립된 사업을 이루고 나서야

헨처드의 시선은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향한다.

파프레에 대한 헨처드의 태도는 엘리자베스 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가 딸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만큼 엘리자베스 제인 또한 아버지인 헨처드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엘리자베스 제인의 욕망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남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파프레를 향한 헨처드의 애정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제인은 파프레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지 못하며 이를 억압한다. 후에 헨처드가 파프레를 자신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증오하게 되면서 엘리자베스 제인과 두 남성 사이의 관계도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헨처드의 갈 곳 잃은 애정은 곧바로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향한다. 이러한 헨처드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버지와 자신의 사회적 위신을 고려하여 엘리자베스 제인은 파프레와 가까워지는 것을 포기한다.

수전이 죽은 후 헨처드는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자신이 친부임을 밝히고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신의 성을 따르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수전은 사망으로 그와 분리되었으며 그의 친구이자 조력자였던 파프레는 불화로, 엘리자베스 제인은 사실에 대한 무지로 그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헨처드가 보기에 “그중 단 한 사람만 돌아올 수 있을”(only one of them could possibly be recalled, 114) 것 같았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엘리자베스 제인이다. 헨처드는 엘리자베스 제인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한다. 그는 엘리자베스 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녀에게 다가간다. 헨처드에게는 자신의 부권을 회복시켜 줄 대상이 바로 엘리자베스 제인인 것이다. 이는 그녀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그의 말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헨처드는 “엘리자베스, 네 아버지는 리처드 뉴슨이 아니라 바로 나야”(Elizabeth, it is I who am your father, and not Richard Newson, 114)라는 말을 통해 뉴슨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이

혈통적으로도 합당한 가부장임을 강조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헨처드의 성을 따르는 것에 동의하고 난 후 진정한 가족이 생긴 순간을 음미하기도 전에 헨처드는 수전이 남긴 편지를 통해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신의 친딸이 아님을 알게 된다.

부멜라는 “하디가 고안한 대부분의 중산층 여성등장인물에게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하고 두드러지게 특이한 점”(one notable and significant oddity common to many of Hardy’s bourgeois women)으로 “아버지의 부재”(the lack of a father, 40)를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엘리자베스 제인과 다른 여성인물에게도 해당되는데, 수전과 엘리자베스 제인, 루세타 모두 아버지가 없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아버지가 부재한 빅토리아 시대 미혼 여성이 처한 상황은 예컨대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고아 여성인물에 관한 비평에 잘 드러나 있다.

의도적으로 고안된 아버지의 부재는 세 가지 결격을 상징한다. 이는 계층 구조, 친족 관계, 오디디푸스적 사회화로부터 탈락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이 중산층 여성에게는 재산을 물려받거나 그녀를 결혼으로 교환하거나 전형적인 오이디푸스적 사회화를 위한 조건을 성립할 수 있는 아버지가 없다.

the devised absence of the father represents a triple evasion of . . . class structure, kinship structure and Oedipal socialisation. Its consequences are that there is no father from whom the bourgeois woman can inherit property, no father to exchange her in marriage, and no father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typical Oedipal socialisation. (Brooker 115)

위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자베스 제인은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며 그녀를 위해 아버지가 결혼상대자를 준비해 두지도 않는다. 특히 그녀는 감정적으로 아버지와 교류를 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 자체가 부재할지라도 그가 대변하는 가부장적 질서는 주로 유사아버지로 대체되어 나타”(while the father himself is largely absent, the patriarchal law that he embodies is frequently displaced on to a pseudo-father, Boumelha 41)나는데, 엘리자베스 제인의 경우에는 양아버지인 헨처드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할 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하디의 소설에서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에 대한 고민이 종종 드러난다. 『더버빌가의 테스』의 무능한 아버지는 딸인 테스의 성장을 돕지 못하며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테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무명의 유드』에서 유드(Jude)의 아버지 또한 애초에 부재한 상태로 작품이 시작된다. 이에 반해 헨처드의 존재감은 너무 강력해서 엘리자베스 제인이 활약할 수 있는 삶의 무대를 제한시킨다. 수전의 편지를 읽고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신의 친딸이 아님을 알게 된 후에도 헨처드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성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번복하지 않는다. 그가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그녀를 배려해서이기보다 그녀를 자신의 부권을 확립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이다. 헨처드는 “어떤 위선이 개입되었더라도 자기가 그녀에게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 자기의 딸, 그리고 그녀가 늘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될 자기의 딸”(His daughter he had asserted her to be, and his daughter she should always think herself, no matter what hypocrisy it involved, 119-20)로 엘리자베스 제인을 두기 원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을 자신의 친딸로 여겼을 때 존재했던 헨처드의 애정은 냉담함으로 변질되고 그는 엘리자베스 제인을 학대하기

시작한다. 그의 “냉담함”(coldness)은 이내 “노골적인 책망”(open chiding)으로 이어진다. 헨처드의 눈에 엘리자베스 제인의 큰 결점 중 하나는 “때때로 지독하고 기발한 방언을 쓰는 것”(occasional pretty and picturesque use of dialect words)인데 그가 보기에 그 방언은 “진정한 상류층과 구별되는 끔찍한 하층민의 표시”(those terrible marks of the beast to the truly genteel, 121)이다.

그러나 격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냉담함이었다. 그가 더 자주 냉담한 분위기에 빠져든다는 것은 반감이 점점 커져 그녀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의미했다. 이제 외모와 태도를 그녀 스스로 가꿀 수 있게 되고 또 실제로 지혜롭게 다듬어진 그녀의 온화함이 점점 관심을 끌수록, 그녀는 점점 더 그와 멀어지는 것 같았다. 때때로 그녀는 거의 견디기 힘들 정도의 험악하고 불쾌한 눈초리로 자기를 쳐다보는 그와 마주쳤다. 그녀는 비밀을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성을 선택했을 때 처음으로 그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건 잔인한 우렁이었다.

But his passion had less terror for her than his coldness. The increasing frequency of the latter mood told her the sad news that he disliked her with a growing dislike. The more interesting that her appearance and manners became under the softening influences which she could now command, and in her wisdom did command, the more she seemed to estrange him. Sometimes she caught him looking at her with a luring invidiousness that she could hardly bear. Not knowing his secret it was cruel mockery that she should for the first time excite his animosity when she had taken his surname. (122-23)

헨처드의 성을 따르자마자 바뀐 그의 태도로 인해 엘리자베스 제인이 느꼈을 거절감과 소외감은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의연하게 대처하며 강한 정신력을 보인다. 하디가 현재의 엘리자베스 제인으로 바꾸기 이전에 창조했던 그래픽 판의 엘리자베스 제인은 “나의 미천함이 다른 이들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인데 왜 내가 천하다고 불려야 하는 거죠?”(Why should I be called low, when my lowness is of other people’s making?, 242.2)라고 외치면서 “헨처드의 부당함에 격렬하게 항의”(vehemently protests against Henchard’s injustice, Dalziel 79)하며 그와 맞선다. 현재의 엘리자베스 제인은 이보다는 덜 공격적이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신념을 굽히지 않는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다.

헨처드가 엘리자베스 제인의 말투와 글씨체를 문체 삼으면서 학대하자 엘리자베스 제인은 학구열로 대응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적인 열망을 위해서이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과거에 스리 마리너즈 여관(The Three Mariners’ Inn)에서 하룻저녁동안 일을 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헨처드는 그녀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내지만 엘리자베스 제인은 혼자 남겨진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 헨처드의 학대와 그로 인해 엘리자베스 제인이 겪는 고립된 시간, 이를 그녀가 활용하는 법은 아래 인용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사실이 그의 귀에까지 들려온 적이 없었음에도, 그로 인해 분명히 자신의 지역적 명성과 지위가 뼈아픈 손상을 받았다고 확신한 헨처드는 언제든 그녀와 마주칠 때면 자기 딸이 아닌 소녀의 존재에 대해 확실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그는 식사도 주로 집 바깥인, 최고의 호텔 두 곳 중 한 곳의 곡물 거래실에서

농부들과 함께하면서 그녀를 완전한 고독 속에 남겨두었다. 그녀가 그 조용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 수만 있었다면 그는 그녀의 자질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뒤집을 이유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메모를 했다. 지독한 근면함으로 세상사를 숙지해갔고, 스스로 부과한 과제에서 쫓무니를 빼는 일도 결코 없었다.

Convinced of the scathing damage to his local repute and position that must have been caused by such a fact, though it had never before reached his own ears, Henchard showed a positive distaste for the presence of this girl not his own, whenever he encountered her. He mostly dined with the farmers at the market-room of one of the two chief hotels, leaving her in utter solitude. Could he have seen how she made use of those silent hours he might have found reason to reserve his judgment on her quality. She read and took notes incessantly, mastering facts with painful laboriousness, but never flinching from her self-imposed task. (124)

헨처드의 폭압은 가부장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딸에 대한 그의 강압적인 행동은 특수한 성격을 띤다. 즉, 그는 착한 딸을 원한다기보다 특정한 여성상을 원한다. 헨처드는 노동계층 출신이라는 자신의 미천한 신분을 숨기고 엘리자베스 제인을 통해 보상받기 원한다. 그녀가 아름다움과 우아함, 상류층의 매너와 가치관을 가진 여성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계급에 대한 콤플렉스를 건드릴 때 헨처드는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수치를 모두 그녀를 향해 화살을 돌린다.

엘리자베스 제인과 헨처드는 명백히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을 추구하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헨처드는 엘리자베스 제인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헨처드가 상류층의 매너와 품위를 드러낼 수 있는 교양 쌓기를 강요할 때 엘리자베스 제인은 지식과 학문 자체에 대한 열망을 보인다. 중요한 사실은 엘리자베스 제인의 순수한 학문적 탐구에 대한 열정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시작된 것도 아니며 그녀가 이를 위해 자신의 열정을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지식 탐닉은 온전한 개인으로 성장하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도달하고자 하는 독립성에 대한 그녀의 갈망을 나타낸다.

자신의 진짜 아버지로 믿고 있는 헨처드의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엘리자베스 제인은 좌절하는 대신 끊임없이 자신의 자아를 확장시킬 방법을 모색하며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투기와도 같은 길”(the speculative path of matrimony, 119)을 선택해 아버지의 소유물에서 남편의 소유물로 대체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 대신 엘리자베스 제인은 루세타의 집인 하이플레이스 홀에 들어가 그녀의 말동무이자 조언자로 그 집에서 생활하기로 선택한다. 루세타와 엘리자베스 제인의 관계는 2장과 3장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주변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이용당하기도 하지만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 그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엘리자베스 제인은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녀에서 스스로의 생계와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배우자를 직접 선택하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아버지 찾기 1막이 헨처드-파프레-엘리자베스 제인의 삼각관계를 이룬다면 2막은 헨처드-루세타-엘리자베스 제인의 삼각구도를 보인다. 파프레와 루세타의 등장으로 인해 아버지인 헨처드와 가까워지려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욕망은 계속해서 좌절당하지만 바로 이러한 갈등상황으로 인해 그녀의 독립과 결혼은

가능해진다. 만약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명확한 혈통의 아버지가 있었다면 결코 가부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남성인 파프레와의 결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미혼여성으로 아버지가 정해진 남편감과 결혼식을 올려 출가해야했을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존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한다.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헨처드와 엘리자베스 제인의 역할은 완전히 전도된다. 쇼월터가 지적하듯이 “엘리자베스 제인의 결혼식을 향한 헨처드의 마지막 순례는 하나하나 모두 소설 초반에 두 여성이 걸었던 여정의 재현”(Henchard’s final pilgrimage, to Elizabeth-Jane’s wedding, is, detail by detail, a reliving of the journey made by the women at the beginning of the novel, Showalter 113)이다. 한때는 자신의 집이었던 엘리자베스 제인과 파프레의 집을 향한 헨처드의 발걸음은 이전에 그를 찾아서 캐스터브리지에 왔던 수전과 엘리자베스 제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수전과 엘리자베스 제인이 시의회를 주도하는 그를 지켜보았듯이 이제는 그가 자신의 수양딸이 그녀의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된 모습을 지켜봐야”(As Susan and Elizabeth-Jane watched him preside over the meeting of the Council, so he now must watch his stepdaughter preside over her wedding-party) 한다. 헨처드의 성공과 번영은 갑작스럽게 종결되며 그 자리를 다음 세대인 파프레와 엘리자베스 제인이 채워나가게 된다. 하층민 여성으로 엘리자베스 제인과 수전이 겪었을 고난을 이번에는 신분이 격하된 나이든 헨처드가 경험하는 구도이다. 아버지와 시장이라는 두 역할로 대변되는 강력한 가부장의 상징이자 캐스터브리지 주민들에게 여성혐오자로 불렸던 헨처드가 자신의 가족과 여성이 처했던 상황을 겪음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서사는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가는 서사와 함께 간다.

작품 초반과 중반부에서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찾는 중에 있다면 작품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헨처드와 뉴슨이 엘리자베스 제인을 찾아 나선다. 후반부는 뉴슨과 헨처드 두 아버지 중 누가 엘리자베스 제인을 자신의 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에 방점이 찍힌다. 이 팽팽한 삼각관계는 헨처드가 캐스터브리지를 떠나면서 일순간 뉴슨이 승리자로 막이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선원의 피를 속일 수 없어 바다가 그리워 떠난다는 명목으로 뉴슨은 갑자기 텍스트 밖으로 퇴출당하고 그 자리를 다시 헨처드가 채우게 된다. 결국 떠난 헨처드의 뒤를 쫓아가는 엘리자베스 제인은 암묵적으로 그를 자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여 그의 장례를 치른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헨처드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모습은 마지막 장에서 나타나는데, 이 장면은 작품의 초반부에서 수전과 함께 헨처드를 찾던 그녀를 연상시킨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간이 흐른 뒤 죽은 새와 새장을 본 엘리자베스 제인은 이것이 헨처드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결혼 선물”(a wedding gift)이자 “참회의 표시”(a sign of repentance)인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으며 그를 향한 “그녀의 마음이 누그러진다”(her heart softened). 엘리자베스 제인은 파프레에게 헨처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기가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to help her in finding out, as soon as possible, 305)을 간청하며 남편이 모는 이륜마차를 타고 의붓아버지의 행방을 찾는다.

간선도로를 따라 몇 마일을 달린 후 그들은 다시 수소문했다. 그 부근에서 여러 주일째 일하고 있는 도로 보수원 하나가 그런 남자를 그들이 언급하는 무렵에 보았다고 했다. 그는 그 남자가 웨더베리에서 멜체스터 간선도로를 벗어나, 그 지점에서 갈라져 에그돈 히스의 북쪽을 스치는 다른 간선도로를 들어섰다고 말했다.

..

에그돈을 뒤졌지만 헨처드는 없었다. 파프레는 계속 마차를 몰았고 오후에는 앵글베리 북쪽으로 약간 뻗어 나간 황야 근처에 도착했다. 그들은 황량한 전나무 숲이 두드러져 보이는 언덕의 정상 아래를 곧 통과했다.

After driving along the highway for a few miles they made further inquiries, and learnt of a road-mender, who had been working thereabouts for weeks, that he had observed such a man at the time mentioned; he had left the Melchester coachroad at Weatherbury by a forking highway which skirted the north of Egdon Heath. . .

They searched Egdon, but found no Henchard. Farfrae drove onward, and by the afternoon reached the neighbourhood of some extension of the heath to the north of Anglebury, a prominent feature of which, in the form of a blasted clump of firs on a summit of a hill, they soon passed under. (306)

헨처드를 찾아다니는 동안 인물들 간의 대화는 일체 등장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변화되는 장소는 사건의 급박함을 보여준다. 서술자는 엘리자베스 제인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그녀가 상당히 먼 거리를 쉽 없이 헨처드를 찾고자하는 열망으로 가고 있음을 묵묵히 묘사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의붓아버지를 찾는 이유는 “그를 자기와 어느 정도 비슷한 평온 상태에 놓이기 위함”(to place Henchard in some similar quietude, 306)이라고 묘사되지만 헨처드를 반드시 다시 만나겠다는 애절함과 절박함이 없었다면 그녀는 출발을 지체하거나 수색을 쉽게 포기했을 것이다.

헨처드를 찾는 여정으로 시작되었던 엘리자베스 제인의 이야기는

또 한 번 그를 찾는 과업으로 마무리된다.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의 서사 자체가 엘리자베스 제인이 아버지를 찾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자베스 제인을 여주인공으로 상정했을 때, 그녀의 삶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왜 중요하며 헨처드와 뉴슨 중 누구를 아버지로 선택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뉴슨은 엘리자베스 제인의 친부임이 확실하지만 그는 소설 초반과 후반부에 잠깐 등장하고 사라진다. 반면 헨처드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얽히며 그녀가 마주치는 인물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이자 수전의 법률적 남편, 엘리자베스 제인의 의붓아버지인 헨처드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이름을 지었으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했다.

헨처드는 부성애가 부재한 인물로 작품 속에 처음 등장한다. 아내매매를 통해 아내와 자식을 판 그는 가족의 유대보다 자신의 성공과 명예가 더 중요한 인물이다. 결국 헨처드의 지위는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으로 상승하지만 한 도시의 ‘시장’이라는 그의 정체성 속에 부성(fatherhood)은 지워져 있다. 그러나 파프레와 엘리자베스 제인의 출현은 그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결국 작품이 전개되어감에 따라 헨처드는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아버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하디는 헨처드를 통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묻고 있다.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으로서 헨처드의 임기는 빠르게 종결되며 그의 엘리자베스 제인의 아버지로서의 자격 여부가 중요한 질문으로 부상한다. 자신의 가족조차 제대로 부양하고 돌보지 못한 점에서 헨처드는 아버지로서 실격이며 이는 또한 시장 직위에서 퇴출당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는 결국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떠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기꺼이 지우려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작품 후반부에 헨처드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아버지로 독자들의 기억에 남게 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아버지 찾기는 그녀가 뉴슨과 헨처드 중 어떤 인물을 자신의 아버지로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헨처드는 비록 그녀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줬지만 동시에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아버지상(father figure)이다. 썸너(Rosemary Sumner)는 헨처드를 관찰하고 그와 교류하면서 엘리자베스 제인이 더 강한 자제력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른다고 논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고심하여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녀는 주의 깊으며 자기 통제적이고 옷을 선택하는 것이나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같이 그 어떤 방향으로든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면밀히 보호한다. 그녀는 파프레와 루세타 사이에 사랑이 싹트는 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지만 분노를 품지 않는다. . . 이러한 자제력은 선천적으로 그녀가 감수성이 둔감해서가 아닌, 과거의 쓰라린 경험과 양아버지를 관찰한 것에 따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세에서 기인한다.

Elizabeth-Jane, by deliberation, never goes to extremes. She is wary, self-controlled, carefully protecting herself from excesses in any direction, whether in the choice of clothes or in feeling emotions. She is able to watch the developing love between Farfrae and Lucetta with pain, but without anguish. . . It is not an innate lack of sensibility that causes her restraint but rather a self-protective attitude learnt from bitter experience and from observation of her step-father; . . . (Sumner 78)

헨처드와의 관계에서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 성난 황소를 피해 달아나거나 실연을 당했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도 엘리자베스 제인은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그녀는 아버지의 폭압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부모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터전을 이룬다. 루세타가 친척에게 받은 유산과 남편의 지위로 신분상승할 때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부양한다. 친아버지와 양아버지 둘 다로부터 버림받고 양아버지에게 학대받지만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에 맞서는 엘리자베스 제인은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 헨처드는 수전과 엘리자베스 제인을 가족으로 자신의 저택에 들였으며 가장 오랜 시간 엘리자베스 제인과 함께 교류한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결혼식에 왔을 때 그가 보인 진실한 모습에서 엘리자베스 제인은 헨처드를 용서하고 그를 자신의 정신적 아버지로 삼는다.

마지막 장에서 엘리자베스 제인이 헨처드의 발걸음을 추적하여 결국 그를 찾아내고 그의 죽음에 관한 증언을 휘틀(Abel Whittel)에게서 생생하게 듣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휘틀의 등장은 소설의 흐름상 부자연스러우리만큼 갑작스럽다. 하디는 휘틀의 입을 통해 엘리자베스 제인의 아버지 탐색을 종료함과 동시에 소설의 여주인공이 헨처드를 자신의 계보로 편입시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헨처드가 죽어가면서 쓴 유언장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실행하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모습(309)은 그를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 초반에서 아버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캐스터브리지로 올 수밖에 없었던 엘리자베스 제인은 헨처드가 그녀의 의붓아버지가 되고 나서 억압적인 부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다. 헨처드와 엘리자베스 제인이 진정한 부녀관계로 들어서는 순간은 엘리자베스 제인이 그로부터 독립해 나와 살던 때이며 헨처드가 시장 직위를 박탈당하고 가부장의 권위를 잃은 후이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던 기저에는 아버지의 부재와 아버지 찾기가 있으며 두 명의 아버지를

등장시킴으로써 하디는 아버지의 역할과 부성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제인과 헨처드의 관계를 분석하며 엘리자베스 제인이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아버지 찾기는 결국 ‘찾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엘리자베스 제인의 시각에서 주체적으로 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의 힘이다. 다음 장에서는 엘리자베스 제인과 파프레의 로맨스 전개방식과 엘리자베스 제인의 지식 탐구와 섹슈얼리티 억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2. 로맨스의 욕망과 결혼의 의미

엘리자베스 제인은 이전 세대인 수전과 헨처드, 뉴슨에 의해 자신의 유년시절이 일부분 희생되며 작품 속에서 선택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기성세대에 의해 일견 착취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강력한 아버지와 화려한 연적(戀敵)인 루세타 사이에서 존재감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작품 속에서 버림받는 여성의 아픔을 감내한다. 특히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남성인물들의 냉대와 무관심을 경험하며 이를 이겨내야 하는 과업이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주어진다. 엄밀히 따지면 친아버지인 뉴슨은 아내매매를 통해 얻은 아내인 수전이 더 이상 자신을 법적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두려워하여 아내와 딸을 버리고 자취를 감추었다. 이들 모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는 핑계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며, 엘리자베스 제인에게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아버지이다. 또한 엘리자베스 제인은 친부로 믿고 있는 헨처드와 자신의 첫사랑인 파프레가 “매일 자신의 친구에게 더 깊이 빠져드는”(became more desperately enamoured of her friend every day, 166)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봐야 한다.

아버지에게 거부당할 뿐 아니라 연인에게까지 거절당하고 선택받지 못하는 여성의 모습은 샬럿 브론테(Charlotte Bronte)의 『제인 에어』(*Jane Eyre*)에서 주인공 제인(Jane)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고아로 외숙모의 집에서 학대받으며 자라나 가정교사로 손필드(Thornfield) 저택에 간 이후 로체스터(Rochester)에게 마음을 열지만 화려한 블란치(Blanche)와 결혼하려는 것처럼 연기하는 그에게 상처를 입는다. 엘리자베스 제인 역시 고아와 다를 바 없는 처지로 실연을 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통과한 끝에 엘리자베스 제인은 선택받는 여성이 아니라 『제인 에어』의 여주인공처럼 주체적으로 남성을 선택하는

여성으로 스스로를 정립한다.

제켈은 “엘리자베스 제인은 그녀에게 닥치는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Elizabeth-Jane accepts the realities of life as they come to her) “연인의 상실부터 ‘아버지’의 냉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모멸을 빠르게 용서한다”(quick to forgive almost every slight even to the loss of a lover and the neglect of a “father”, 132)고 말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고통에 무디지 않지만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서술자는 엘리자베스 제인이 “두 사람이 손톱만큼도 자신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아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그녀가 때때로 그 상황의 우스꽝스러움을 감지함으로써 절반 정도 사라졌다”(The pain she experienced from the almost absolute obliviousness to her existence that was shown by the pair of them became at times half dissipated by her sense of its humourousness, 166)고 서술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고통 속에 자신을 내맡기기보다 현실을 직시하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여유를 지녔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태도가 그녀에게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뛰어난 관찰자이지만 이러한 그녀의 습성이 파프레와의 로맨스를 방해한다. 삶의 현장으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그녀의 태도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기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루세타와 견주었을 때 자신은 “하늘에 달이 떴을 때 ‘더 초라한 밤의 별’ 중 하나일”(one of the “meaner beauties of the night,” when the moon had risen in the skies, 167)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소극적으로 반응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는 삶의 태도는 “언제나 그녀가 갈망했던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그녀에게 허용되었던 것은 그녀가 갈망했던 것이 아니었던”(Continually it had

happened that what she had desired had not been granted her, and that what had been granted her she had not desired, 167) 과거로부터 기인한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려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성향 또한 언제 다시 불행해질지 모르는 삶의 불안정함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방어기제이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감추고 관찰자의 위치에 머무르려는 관성을 넘어설 때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이 외모에 치중하게 될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여성적 아름다움을 감추려 한다.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든 지나칠 정도로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을 것”(won't be too gay on any account, 83)이라고 다짐하면서 미적 욕망을 억제한다. 화자는 급격하게 예뻐지고, 생활이 편해지고, 평생 처음 부유함을 경험한 대부분의 소녀들은 옷치장에 몰두하겠지만 엘리자베스 제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엘리자베스는 거의 모든 일에서 합리성을 앞세웠는데 그 태도는 옷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사치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업상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습관이다. 순박한 이 소녀는 타고난 분별력으로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 처신이 거의 천재적이었다.

The reasonableness of almost everything that Elizabeth did was nowhere more conspicuous than in this question of clothes. To keep in the rear of opportunity in matters of indulgence is as valuable a habit as to keep abreast of opportunity in matters of enterprise. This unsophisticated girl did it by an innate perceptiveness that was almost genius. (83)

화자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승리감이 신중함에 의해 억제되었다”(triumph was tempered by circumspection)고 말하면서 그녀의 “합리성”(reasonableness)과 “타고난 분별력”(innate perceptiveness, 83)을 강조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제인이 화려한 의복을 피하는 이유는 합리성에 기초해서이기보다 자신의 욕망이 겉으로 표출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의복 선택이 정말 합리성에 기초했다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너무 수수한 의복이라는 양 극단의 선택지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아버지의 지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의 단정하고 아름다운 복장을 입는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다. 타인이 보기에 수수한 복장이지만 그녀가 유독 좋아하기 때문에 특정 옷을 입는다거나 그녀의 확고한 취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옷을 입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하는 행위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입는 것에 대해 즐거운 상상을 하지 않겠다는 특이한 다짐을 하면서”(formed curious resolves on checking gay fancies in the matter of clothes, 90) 외모를 가꾸는 것을 거의 죄악시한다. 사춘기 여성이 자신의 외모와 성적매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오히려 이를 죄악시하고 억압하는 행위는 그 밑바탕에 치장을 일종의 정신적 타락으로 여기거나 꾸미는 행위에 과도하게 탐닉하게 될 것을 겁내는 심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외모를 가꾸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녀가 외형적으로 아름답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미모가 뛰어나며 루세타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은 화자나 캐스터브리지 주민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화자는 “엘리자베스 제인이 일찌감치 여성적으로 성숙”(Elizabeth-Jane developed early into womanliness)했으며 그녀의 내부에 “감추어진 멋진 용모”(an under-handsomeness, 25)가 있었다고 묘사한다. 왕실의

저명인사가 캐스터브리지를 방문하는 행사에서 한 캐스터브리지 주민은 엘리자베스 제인이 루세타보다 “더 미인”(a better-looking woman, 247)이라고 언급한다. 루세타가 “단순히 예쁜”(simply pretty) 반면 엘리자베스 제인은 “당당하게 아름답다”(writ handsome, 125)는 화자의 말처럼 엘리자베스 제인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루세타보다 뛰어나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아름다움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도널드 파프레이다. “처음에는 뉴슨 양의 꽃봉오리 같은 미모에 캐스터브리지의 어느 누구도 큰 관심을 두지 않”(At first Miss Newson's budding beauty was not regarded with much interest by anybody in Casterbridge)지만 “도널드 파프레이의 시선”(Donald Farfrae's gaze)은 그녀에게 “매혹”(attracted)된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처음으로 헨처드에게 정교하게 염색된 장갑을 선물 받은 후, 장갑에 어울리는 드레스를 입고 보닛과 양산을 쓴 날 화자는 파프레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매료되었다”(Everybody was attracted, 90)고 서술한다.

도널드 파프레이 역시 그녀에게 감탄했다. 또 전체적으로 보아 그녀에게는 신이 나는 시기였다. 예전의 그녀는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강해서 여성다움을 느껴볼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만큼 그녀의 내면에서 여성성이 그토록 강하게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But Donald Farfrae admired her, too; and altogether the time was an exciting one; sex had never before asserted itself in her so strongly, for in former days she had perhaps been too impersonally human to be distinctively feminine. (90)

그러나 이토록 “신나는 시기”(an exciting one)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제인은 이 순간을 누리면서 자신의 매력을 펼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여성성이 드러나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여성, 아름다운 여자, 꾸미는 여자,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여자, 성적 욕망을 지닌 여성으로 보이기보다 책을 읽는 사람, 이성적이고 학구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기보다 이성과 합리성의 틀에 자신을 가두려한다. “돈에 여유가 생긴 순간에 천박하게 치장한다는 것이 자신의 과거 생활과 모순되기 때문”(because it was inconsistent with her past life to blossom gaudily the moment she had become possessed of money, 90)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여성으로 돋보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이를 지식 탐구에 대한 열망으로 대체한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감탄 어린 시선을 경험한 이후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해본 끝에 그녀는 자신이 늘 두려워하던 바로 그 상태, 즉 외모를 과장하고 싶어 하는 욕망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매우 슬퍼졌다. “이 모든 것에 뭔가가 잘못되었어.” 그녀는 골똥히 따져봤다. “그들이 내가 얼마나 덜 떨어진 소녀인지, 이탈리아 말도 못 하고, 지구본도 사용할 줄 모르고, 그들이 기숙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 한 가지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날 얼마나 경멸할까! 이 화려한 옷과 보석을 모두 팔아버리고 내게 도움이 되는 문법책과 사전과 온갖 철학이 담긴 역사책을 사는 게 한결 나을 거야!”

When she had thought it over, her usual fear of exaggerating appearances engendered a deep sadness. “There is something wrong in all this,” she mused. “If they only knew what an

unfinished girl I am—that I can't talk Italian, or use globes, or show any of the accomplishments they learn at boarding schools, how they would despise me! Better sell all this finery and buy myself grammar-books and dictionaries and a history of all the philosophies!” (91)

엘리자베스 제인이 한 번도 외모를 가꾸고 싶다는 욕망을 느낀 적이 없다면 그녀가 치장하지 않는 행동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외모를 과장하는 것에 대해 그녀가 평소에 품고 있는 두려움”(her usual fear of exaggerating appearances)과 치장한 자신의 아름다움에 “뭔가 잘못된 것”(something wrong, 91)이 있다고 말하며 괴로워하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모습에서 자신이 아름다워 보이기 원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녀의 내면을 읽을 수 있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의 성(性)이 드러나는 것, 자신이 남성을 유혹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감추려하며 그 대신 품위를 갖춘 지적인 존재로서의 “숙녀”가 되기 원한다. 그녀는 외모에 부합하는 지식과 교양을 쌓아야만 진정한 숙녀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충분히 교양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외양마저도 그에 맞춰서 수수하게 보이도록 한다. 여성성과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옷차림을 통해 여성으로 돋보이려는 욕망을 억누르는 대신 엘리자베스 제인은 지식 습득에 탐닉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의 여성적 자아와 성적 욕망을 억제하지만 아름다움에 무감각하지는 않다. 자신의 피부가 햇빛에 민감해지는 것을 느끼자 엘리자베스 제인은 “티끌 하나 없이 여성다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여기면서 두 뺨을 당장 보호”(protected those cheeks forthwith, deeming spotlessness part of womanliness, 83)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제인은 당대의 사회적 기준에서 취약한 여성의

위치에 놓이도록 만들 수 있는 여성적인 아름다움보다 남성들이 지위상승을 위해 추구하는 지식 탐구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삶에 대한 거부는 스스로를 여성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 자신의 여성성을 억압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식 탐닉에 대한 열망으로 발현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남성권력에 종속적으로 위치해있던 수많은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 중 한 명으로 규정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녀는 결혼을 통해 남성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며 자립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이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평범한 여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하고 이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숨기려 하거나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금욕적인 형태로 표출된다. 훌륭한 의복을 입고 외출한 날 캐스터브리지 주민들이 그녀에게 감탄할 때도 엘리자베스 제인은 “내 평생 그렇게 많은 찬사를 받아보기는 처음이야. . . . 아마 심미안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찬사이지만.”(It is the first time in my life that I have been so much admired. . . . though perhaps it is by those whose admiration is not worth having, 90)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대신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그녀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기 원하며 이는 그녀를 관찰하는 주체로 만든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을 사건의 중심이 아닌 한 발짝 떨어진 “숨겨진 관찰자”(the concealed observer, Kiely 189)의 위치에 둔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은폐하는 모습은 화려한 의복을 거부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집 안에 숨어서 다른 인물들과 주위 상황을 관찰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처음 캐스터브리지에 도착해서 헨처드를 관찰한 후 그녀는 스리 마리너즈

여관에서 은밀하게 파프레를 훑쳐보며 주의 깊게 여관 사람들을 본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특별히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without herself being particularly seen) 방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구경하는 “관찰자”(a spectator)로 묘사된다. 사람들에게 당당히 자신을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살금살금 다가서서”(crept silently) 자신의 몸을 숨기고 “현장을 관찰한다”(observing the scene, 48). 그녀는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기보다 거의 대부분 뒤에서 훑쳐보는 쪽을 택한다.

나무 의자 뒤에 숨은 엘리자베스 제인이 “그처럼 은밀하게 나뭇의 조망을 하고 있을 때”(While thus furtively making her survey, 48) 그녀는 파프레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처음으로 그에게 매력을 느낀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보는 주체로 등장하지만 로맨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녀가 숨겨진 관찰자인 것이 바로 그녀의 약점이다.”(It is her vulnerability that makes her a hidden observer, Grossman 634) 엘리자베스 제인은 로맨스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 간접적으로 관찰과 상상을 통해 대리 로맨스를 느낀다.

파프레가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스리마리너즈 여관의 계단에서 그녀와 마주쳤을 때이다. 이 때 두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대조적이다. “그녀를 보고 떠올린 듯한 짙막한 옛 노래를 감미롭게 부르며”(he softly tuned an old ditty that she seemed to suggest) 자신의 순간적인 호감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표출하는 파프레와 달리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져서”(face flushed) “시선을 바로 자기 코밑에 든 촛불 쪽으로 내리깔고”(with her eyes bent on the candle-flame that she carried just below her nose) 그의 걸을 “서둘러 지나쳐간다”(hastened on, 53). 이성에게 직접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장려되었던 남성과 달리 여성은 수줍음과 겸손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는 규범 또한 엘리자베스 제인으로 하여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관찰자의 위치에 자리해 있으며 현실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상상력을 통해 로맨스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정확한 관찰”(accurate observation)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방에서 엘리자베스 제인의 “조용한 눈”(quiet eye, 85)은 파프레와 헨처드의 모습을 좇으며 그녀는 파프레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별난 호기심을 가지고”(with a curious interest, 86) 수전과 자신을 바라보는 파프레의 시선을 감지하고 그 의미를 궁금해 하며 그에 대한 호감을 발전시켜가지만 파프레는 그녀에게 호기심 이상의 이성적인 관심은 가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그녀는 파프레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의 호감을 사려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제하며 그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린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내면은 파프레와 연인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관심을 그가 아닌 다른 것에 돌리려할 뿐 그와의 로맨스를 발전시킬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임시공휴일 날 파프레가 추진한 행사에서 그는 엘리자베스 제인과 춤을 추지만 그녀를 향한 그의 관심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난다. 반면 엘리자베스 제인은 계속해서 파프레에 대해 생각하며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을 과소평가하기에 이른다.

그날 춤추던 자기 모습이 첫눈에 순간적으로 사랑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녀는 그날 입었던 모슬린, 짧은 재킷, 샌들, 양산을 그대로 차려입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자기 생각엔, 정확히 일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지 그 이상은 아니었다. “단지 그를 멍하게 만들기 충분했을 뿐, 그를 그렇게 계속 잡아둘 만큼은

아니었어.” 그녀가 분명하게 단정했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한결 절제된 마음으로, 예쁜 외면에 깃든 영혼이 얼마나 평범하고 수수한 것인지 지금쯤은 그가 발견했겠다고 생각했다.

To solve the problem whether her appearance on the evening of the dance were such as to inspire a fleeting love at first sight, she dressed herself up exactly as she had dressed then—the muslin, the spencer, the sandals, the para-sol—and looked in the mirror The picture glassed back was in her opinion, precisely of such a kind as to inspire that fleeting regard, and no more—“just enough to make him silly, and not enough to keep him so,” she said luminously; and Elizabeth thought, in a much lower key, that by this time he had discovered how plain and homely was the informing spirit of that pretty outside. (104)

엘리자베스 제인의 외모는 외모에 둔감한 헨처드가 보기에 “매우 매력적”(so attractive, 83)일만큼 아름답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의 아름다움 혹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부정한다. 이미 충분한 외면적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파프레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자 그녀는 그 이유를 외적인 것에서 찾는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파프레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에 대해 다른 자질의 부족이 아닌 자신의 아름다움의 부족, 더 나아가서 외형적 아름다움 그 자체의 무의미함으로 돌리며 바로 이러한 점이 그녀가 로맨스를 성취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행위는 그녀가 로맨스를 갈망하지만 이를 철저하게 억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외형적 아름다움이나 여성성을 극대화하여 이성의 관심을 끌어내는 대신 엘리자베스 제인은 로맨스에 대한 간절한 욕망을 펼치기보다 강하게 억누른다. “조용히 관찰하는 여인”(that silent observing woman, 103)인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의 몸을 숨기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억제되지 못한 그녀의 열정은 파프래의 글씨가 쓰인 종이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쓴 쪽지처럼 재배열해보는 행동과 같이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로맨스를 즐기는 것으로 표출된다.

이튿날은 바람이 거션다. 너무 심하게 불다 보니 도널드 파프래가 사업에 관해 작성한 편지 초안의 일부가 사무실 담을 넘어 날아갔고 정원을 걷던 엘리자베스 제인이 그것을 주웠다. 그녀는 불필요한 그 쪽지를 실내로 가져와 자기가 경탄해 마지않는 필체를 옮겨 적기 시작했다. 쪽지는 “친애하는 선생님”으로 시작했다. 그녀는 곧바로 돌아다니는 종잇조각에 “엘리자베스 제인”이라고 쓰고는 그것을 “선생님”이라는 글자 위에 덮어 그 문구가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제인”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곳에서 그녀가 하는 짓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배합을 보는 순간 그녀는 금방 얼굴이 빨개지고 온몸이 흥분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종이를 찢어 던져버렸다. 그런 다음 다시 침착해진 그녀는 웃음을 짓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웃었다. 기뻐서 웃는다가보다는 괴로워서 웃는 것이었다.

The next day was windy—so windy that walking in the garden she picked up a portion of the draft of a letter on business in Donald Farfrae’s writing, which had flown over the wall from the office. The useless scrap she took indoors, and began to

copy the calligraphy, which she much admired. The letter began “Dear Sir,” and presently writing on a loose slip “Elizabeth-Jane,” she laid the latter over “Sir,” making the phrase “Dear Elizabeth-Jane.” When she saw the effect a quick red ran up her face and warmed her through, though nobody was there to see what she had done. She quickly tore up the slip, and threw it away. After this she grew cool and laughed at herself, walked about the room, and laughed again; not joyfully, but distressfully rather. (104)

로맨스를 꿈꾸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숨겨진 욕망은 위 대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로맨스를 갈구하는 욕망의 억제는 엘리자베스 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름다움을 은폐하거나 폄하하고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억눌렸던 감정과 로맨스를 향한 욕구는 그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리로맨스를 느끼는 것으로 표출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파프레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괴로움 역시 울음이 아닌 웃음의 형태로 표현한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분명히 인식하지만 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치환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로맨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헨처드와 루세타라는 두 명의 인물의 방해를 넘어서야 한다. 헨처드는 자신의 딸과 파프레의 교제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루세타는 적극적으로 파프레를 유혹한다. 이전에 한 번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고 외출했던 엘리자베스 제인을 보면서 그녀가 “기교 있다는”(artful) 생각이 들자 “그녀에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thought her worth notice, 90)했던 캐스터브리지 주민들은 “교활하고 귀여운 여인”(The artful little woman!, 139)인 루세타의 등장에 주목한다.

하디는 엘리자베스 제인과 강하게 대비되며 경쟁구도를 이루는 또 한 명의 여성인물로 루세타를 작품 속에 등장시킨다. 비가는 등장인물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들의 실제 모습으로 구분되는 “표면적이고 객관적인”(superficially and objectively) 두 가지 층위로 존재하는 것은 하디의 체계에서 중요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의복과 외양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는 “등장인물에 대한 명시적인 재현”(overt representations of character)이나 “소설의 주제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a symbolic commentary on the novel’s theme, 160)으로 기능한다고 평한다.

비가의 지적처럼 표면적으로 엘리자베스 제인은 외면적 아름다움과 로맨스에 무관심해 보인다. 그러나 화려한 옷치장에 대한 거부감과 로맨스에 대한 욕망의 역제는 수수한 외형 속에 숨겨진 엘리자베스 제인의 내면이 얼마나 간절히 로맨스를 갈구하는지 역설적으로 알려준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처음 루세타를 만났을 때의 모습과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실제 그녀가 다른 인물들을 대할 때의 모습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로 엘리자베스 제인이 루세타를 만났을 때 “여인의 태도가 워낙 간절하고 걱정스러워 보여서”(The lady’s manner was so desirous, so anxious, 127) 엘리자베스 제인은 그녀를 “신뢰할 수 있으리라고 결정”(decided there should be confidence, 128)하지만 루세타는 사실상 그다지 신뢰할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난다.

“일시적인 충동이나 목적이 없는 한”(unless for some temporary whim or purpose) 옷을 입는 데 “비교적 무심”(comparatively indifferent, 125)한 엘리자베스 제인과 달리 루세타는 옷차림과 외면적인 것에 많은 비중을 둔다. 벌른(Bullen)은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에서 “예술”(art)은 “교묘함, 가짜 외양, 인격적 교활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이중성”(artfulness, false appearances, personal cunning, and

ultimately moral duplicity, 148)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속성을 “교활하고 귀여운 여인”(artful little woman, 139)인 루세타와 연관 짓는다.

엘리자베스 제인과 루세타의 관계는 친구, 동료, 경쟁자, 집주인과 말동무, 선후배 사이처럼 다양한 양상을 지닌다. 벌른의 지적처럼 루세타는 자신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때로는 교묘하고 약삭빠르지만 로맨스의 성취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또한 그녀는 자신과 결혼을 약속했던 헨처드가 수전과 다시 한 번 결혼식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자신의 자리를 뺏은 연적과도 같은 수전과 그 딸인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별다른 악감정을 품지도 않는다. 비록 헨처드와의 만남을 위해 루세타는 엘리자베스 제인을 이용하려 하지만 그녀에게 순수한 호기심을 품고 친구로 여기며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칠 만큼 단순하고 솔직한 면도 가지고 있다.

“루세타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도플갱어로 작품 속에 등장”(Lucetta enters the story as Elizabeth-Jane’s *doppelgänger*, Bullen 148; 원문 강조)하는데, 화자에 의해 루세타는 “엘리자베스 제인보다 훨씬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but for the fact that it was a lady much more beautifully dressed than she) 엘리자베스 제인의 “유령”(wraith)이거나 그녀와 “꼭 닮은 사람”(double)의 모습으로 소개된다. 특이한 점은 엘리자베스 제인이 루세타를 보자마자 그녀가 “그 순간 자신에게서 모든 신선함과 우아함을 훔쳐간 것처럼 느꼈다”(felt all the freshness and grace to be stolen from herself on the instant, 125)는 사실이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처럼 후에 파프레가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구애하기 위해 하이플레이스 홀에 찾아올 때 그는 엘리자베스 제인 대신 루세타에게 순식간에 매혹되며 엘리자베스 제인의 자리는 루세타에게 넘어간다.

헨처드의 집에서 파프레의 모습을 좇으며 그를 흠모했던 엘리자베스 제인과 달리 엘리자베스 제인을 향한 파프레의 감정은 열린 호감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구애하기 위해 하이플레이스 홀을 방문하는 이유도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심적 여유가 생겼으며 그녀가 아내감으로 손색없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제인과의 결혼을 고려할 때 파프레는 철저히 이성적이며 계산적이다. 처음에 파프레는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구애해도 좋다고 허락한 헨처드의 편지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으나(taken no notice) 사업적인 거래를 성사시켜 “자기가 선택하기만 하면 어떤 상대와도 분명히 결혼할 수 있게 되자”(could undeniably marry if he chose) 엘리자베스 제인의 아내로서의 자질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한다. 그는 “엘리자베스 제인만큼 그렇게 상냥하고, 알뜰하며,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상대가 있을까?”(who so pleasing, thrifty, and satisfactory in every way as Elizabeth-Jane?, 147)라는 생각과 함께 그녀와의 결합이 가져다주는 이득을 따져본다. 파프레는 엘리자베스 제인과 결혼하면 헨처드와 자연스럽게 화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는 계산적인 모습을 보인다.

조건에 부합하는 결혼을 계획했던 파프레가 엘리자베스 제인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은 필연적인 전개이다. 하이플레이스 홀에 도착하자마자 파프레는 루세타에게 매혹되며 이들의 연애는 이후 헨처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일견 루세타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엘리자베스 제인은 루세타의 존재로 인해 감정이 상당부분 결핍된 파프레의 계산적인 첫 번째 결혼 제안으로부터 보호되고 해방되는 셈이다. 루세타가 죽고 난 후 엘리자베스 제인의 가치를 깨닫고 그녀를 향한 순수한 호감을 바탕으로 파프레가 청혼할 때 엘리자베스 제인은 이윤과 계산을 바탕으로 하지

많은 결혼생활을 누릴 수 있다.

작품의 중반부에서 헨처드와 파프레가 루세타에게 동시에 구애하던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작품 후반부에서 이들은 엘리자베스 제인을 두고 또 한 번 경쟁구도에 놓인다. 헨처드-파프레-엘리자베스 제인의 삼각구도에서 엘리자베스 제인이 작품 초반에 헨처드와 파프레의 사랑을 원했다면 이제 두 남성이 그녀의 인정을 갈구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을 향한 파프레의 관심을 자각하지 못했으나 헨처드는 이를 감지하며 “파프레를 연모하는 마음이 자식으로서 아버지인 자신을 생각하는 온화한 마음을 모조리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그녀의 왕래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한다”(uneasy at the thought of a passion for Farfrae which should entirely displace her mild filial sympathy with himself, he observed her going and coming more narrowly, 282). 예전이라면 그는 문제를 직설적으로 해결하려 했을 것이지만 헨처드는 점차 “엘리자베스의 배려에 의존”(the dependence upon Elizabeth’s regard)하게 되었으며 화자는 이것이 “그의 본성을 바꾸었다”(denaturalized him, 283)고 말한다. 헨처드와 파프레가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가장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는 이 시기에 그녀는 이에 연연하기보다 책을 읽고 연구를 하며 건문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둔다. 많은 일들을 겪고 난 뒤 나타나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의연함은 신뢰감을 주며 오히려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그녀가 세상사에 초월한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그녀는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놓인다.

작품 속에서 “집의 안주인인 루세타는 아이에 더 가깝고 아이인 엘리자베스 제인은 어머니에 더 가까운”(the mistress, Lucetta, is often more of a child, and the child, Elizabeth-Jane is finally more of a mother, Jekel 135) 모습으로 이들의 관계는 묘사된다. 어머니인 수전보다도 더 어른스러운 엘리자베스 제인은 주변 인물들의 결함을

포용한다. 그녀는 수전보다 더 어머니 같으며 루세타의 상담자이자 조언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헨처드에게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며 없어서는 안 될 “탐나는 보물”(the coveted treasure, 280)이다. 파프레에게 엘리자베스 제인은 처음 호감을 품었던 대상이자 마지막에 그의 곁을 함께하는 동반자이다. 제켈은 하다가 엘리자베스 제인의 “성실함과 강한 성품, 더 뚜렷한 비전”(sincerity, strength of character, and clearer vision)을 “진정한 교훈”(the truest moral, 135)으로 증명하기 위해 소설 후반부에서 루세타의 몰락을 설정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논하지만 그녀의 주장과 조금 다르게 루세타는 단순히 엘리자베스 제인의 가치를 돋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소모되고 사라지는 존재는 아니다. 루세타로 인해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의 로맨스를 이루는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루세타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제인은 아버지의 권력에서 남편의 권력 아래로 자신의 삶이 종속적인 위치로 옮겨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로맨스는 느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도 많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그녀가 욕망하는 여성주체임을 보여준다. 화자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열정과 그녀가 가진 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녀의 감정과 욕망은 언어가 아닌 몸으로 표현된다. 자신이 흠모하는 대상을 관찰하는 행위를 통해 독자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심경과 내면을 볼 수 있게 된다. 파프레의 쪽지를 이용해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제인”이라는 글씨를 만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지고 온몸이 흥분”(a quick red ran up her face and warmed her through, 104)된다. 그녀의 잔잔한 외면 속에 내재된 강인한 힘과 생명력은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드러나며 헨처드를 찾기 위해 떠나는 마지막 장에서 절정을 이룬다. 무엇보다도 엘리자베스 제인은 다른 이의 욕망을 모방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다. 예컨대 그녀는 파프레가 시장의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혹은 다른 여성들이 그를

갈망하기 때문에 파프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가 스리 마리너즈 여관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박하고 자유로운 모습에서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며 함께 헨처드의 저택에서 지내게 되면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로맨스를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출해간다. 파프레와의 로맨스가 실패한 이후에도 그녀는 주체성을 잃지 않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이를테면, 캐스터브리지의 주민들이 루세타의 옷차림을 모방할 때 엘리자베스 제인은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한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처럼 자신을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여성상으로 바꾸려 하거나 자신을 부양할 남편감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고향을 떠나올 때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더 박식해지고 더 높은 평가를 받는”(a woman of wider knowledge, higher repute), “더 나은 여자”(“better”, 25)가 되려는 목표에 충실하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립해 간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진지하고 억제된 가슴속 욕망”(The desire—sober and repressed—of Elizabeth-Jane’s heart)은 “진정으로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indeed to see, to hear, and to understand, 25)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가장 원했던 이 “보고 듣고 이해하는” 일을 충실히 이행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실연에서 오는 고통을 피하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가 거절당하는 순간에도 감정에 파묻혀 있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 무엇보다 그녀는 결혼시장에 자신을 내맡기거나 자신의 삶을 다른 이에게 종속시키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의 로맨스를 위해 스스로를 상품화하거나 ‘전시’(display)하기를 거부하며 그녀의 정신은 타인의 시선에 매여 있거나 다른 인물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다.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몸의 주인이다.

엘리자베스 제인과 짝을 이루게 되는 파프레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남성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가 처음 엘리자베스 제인을 배우자로 고려했던 이유는 사랑이 아닌 실리에 의한 것이었으며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구애하려던 중 루세타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녀와 결혼한다. 또한 루세타가 죽은 후 파프레는 그녀의 내력이 폭로되었다면 “그 이후 전개되었을 그녀와의 결혼생활에 더 큰 행복이 있었으리라고 믿기 어려웠을”(hard to believe that life with her would have been productive of further happiness) 것이라고 회상하며 루세타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렴풋이 나타나던 불행”(a looming misery)이 “단순한 슬픔”(simple sorrow, 280)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냉정한 판단을 내린다. 그는 모두를 배려하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엘리자베스 제인이나 루세타, 헨처드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알고 있지 않는다. 캐스터브리지의 주민들은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신뢰하며 파프레도 그들에게 호의적이고 인간적인 애정을 품지만 그는 일정선 이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는 인간관계에 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개개인에게 깊은 관심은 두지 않는 유능하고 냉철한 사업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파프레는 이 작품에서 헨처드와 더불어 가장 돋보이는 남성인물이다. 하디는 엘리자베스 제인과 루세타를 대비시켰던 것처럼 헨처드와 파프레의 대립을 통해 각 인물의 성격과 매력을 탐구한다. 파프레는 섬세하고 명예로우며 똑똑하고 자수성가한 남성이다. 그는 공정함을 잃지 않으며 헨처드와 싸울 때에도 정정당당한 승부를 고집한다. 옷자란 밀을 재생하는 방법을 헨처드에게 알려주고 신식 농업기계를 들여오는 과학적 혁신에서 볼 수 있듯이 파프레는 근대로 나아가는 캐스터브리지의 변화를 상징한다. 그는 작품 속에서 유일하게 지성적으로 또한 감성적으로 엘리자베스 제인과 필적할 수 있는 등장인물이다. 파프레는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지 않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특히 고향의 민요를 부르는 파프레의 섬세하고 낭만적인 면모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파프레가 엘리자베스 제인의 삶과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그녀와 함께 지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파프레와 엘리자베스 제인의 결혼은 파프레가 이상적인 남성이어서가 아니라 두 인물의 유대가 남 다르며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합이 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결혼은 그녀의 올바른 행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기보다 그녀가 스스로 쟁취하고 남편감을 선택하는 여정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하디의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에 비해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이 원하고 선택한 배우자와 결혼생활에 도달하며 이에 만족한다. 예컨대 테스와 『쥬드』의 수 브라이드헤드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인해 누구보다도 괴로움을 겪는다. 테스는 결혼첫날밤에 남편이 된 에인절(Angel)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자 그가 떠나기 때문에 혼자가 되어 아픔을 감내한다. 이후 그녀는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 자신을 겁탈했던 알렉(Alec)의 정부로 사는 불행한 상태에 처한다. 필롯슨(Phillotson)과의 결혼생활이 불행했던 수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억압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쥬드와 가정을 이루지만 이번에는 인습에 의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아이들의 죽음까지 목격한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여성인물들에 비해 엘리자베스 제인의 결혼생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형태로 나타난다. 그녀는 삶의 많은 풍파를 겪고 난 이후 평온한 상태에서 자신이 원했던 남성과 결혼하여 더 풍요롭고 안정감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성급한 결혼에 의해 피해를 입는 대신

파프레와 엘리자베스 제인은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이 기반이 된 관계를 맺는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로맨스는 느리고 더디며 루세타의 연애만큼 극적이지도 않지만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흠모했던 대상과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는 축복을 얻는다. 헨처드를 피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갑작스럽고 충동적이게 비밀리에 행해졌던 루세타와 파프레의 결혼식과 달리 엘리자베스 제인의 결혼식은 춤과 음악이 깃든 연회장의 풍경으로 묘사된다. 파프레와의 결혼은 차선책이 없기 때문에 그녀가 선택하는 대안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을 선택한 과거가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미래를 보내기 원하는 그녀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결실이다. 엘리자베스 제인과 파프레의 로맨스는 동화같이 완벽한 서사는 아니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수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3. 여성의 몸과 이동성

엘리자베스 제인은 성적 욕망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지 않고 몸을 숨긴 채 관찰한다. 의식적으로 화려한 의복을 입지 않으려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적” 자아를 지우기 위해 수수한 옷을 입으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는 그녀의 이동성마저 제한하는 듯이 보인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은 캐스터브리지에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활발히 캐스터브리지 안에서 이동하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동의 폭이 넓지 않더라도 엘리자베스 제인이 머무는 공간의 의미가 주체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녀의 작은 움직임들이 분석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과 그녀가 머무는 공간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주체가 그려지는 방식에 주목하려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삶은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는 아버지에게 매여 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루세타와 달리 엘리자베스 제인의 삶은 많은 제약 속에 있다. 루세타는 고아가 되어 가족에 대한 의무로부터 해방되었으며 부유한 친척에게 유산까지 물려받아 “나 자신의 주인”(my own mistress, 139) 즉, 자유의 몸이 된 여성이다. 반면 엘리자베스 제인은 어머니인 수전을 따라 캐스터브리지에 온 후 헨처드의 영향력 아래에 그의 집에서 거의 갇혀 지낸다. 수전이 죽고 난 후 독립하기 위해 헨처드의 집을 떠나 하이플레이스 홀에 온 이후에도 엘리자베스 제인은 루세타를 보필하고 돌보는 역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엘리자베스 제인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먼저 루세타 템플먼을 탐구하려 한다. 루세타는 많은 면에서 엘리자베스 제인과 대비되는 인물이다. 특히 헨처드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적극적으로 이동하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는 헨처드 외에는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루세타는 자신의 친척인 템플먼 이모(Aunt Templeman)가 부유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 좋겠다”(hope will do something for me, 110)는 생각을 자신의 옛 연인에게 드러낼 만큼 야심과 목적을 위해서는 몸을 사리지 않는다.

헨처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루세타는 그녀가 보냈던 편지들을 “우편으로 받는 것보다 직접 돌려받는 것을 선호한다”(prefer this plan of receiving them to having them sent, 110)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헨처드에게 만남을 요청하며 만날 시간과 장소를 그에게 알린다.⁶⁾ 비록 일이 생기는 바람에 헨처드를 만나지 못하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회유할 줄 아는 루세타는 기교가 뛰어난 여성으로 등장한다. 루세타는 이모의 유산을 상속받고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자신의 이름까지 지체 없이 바꾼다. 헨처드에게 쓴 편지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모의]그녀의 성을 따르기로 했”(taken her name)으며 이는 “나의 이름과, 또 내가 저지른 과실들에게서 도망가기 위한 수단”(a means of escape from mine, and its wrongs, 139)이었음을 고백한다.

루세타는 헨처드에게 자신이 바로 “나 자신의 주인”(my own mistress)이라고 말하며 “캐스터브리지에 살기로 선택했다”(have chosen to reside in Casterbridge, 139; 필자 강조)고 당당히 선포한다.

6) 헨처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녀는 헨처드의 의사를 묻는 대신 만날 시기와 장소를 정한 후 그에게 통보한다. “당신이 편지와 사소한 것들을 들고 나와서 저를 만날 수 있을까요? . . . 저는 수요일 저녁 5시 반에 앤티로프 호텔 앞에서 말을 바꿔 매는 마차 안에 있을 거예요. 가운데가 빨간색인 페이즐리 숄을 걸칠 거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Can you meet me with the letters and other trifles? . . . I shall be in the coach which changes horses at the Antelope Hotel at half-past five Wednesday evening; I shall be wearing a Paisley shawl with a red centre, and thus may easily be found, 110)

이와 같이 루세타는 자신의 거처를 선택하며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헨처드와 결혼하기 위해 캐스터브리지에 온다. 그녀는 “제가 캐스터브리지에 살려고 온 건 당신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예요”(It is for your good and mine, as I hope, that I have come to live at Casterbridge, 137)라고 직접적으로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이 캐스터브리지에 온 목적을 밝힌다.

수전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루세타는 자신에게 얽힌 추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헨처드가 있는 캐스터브리지로 찾아오며 그로 하여금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수전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아무것도 방해할 게 없자”(now that there was nothing to hinder it) 루세타는 “그와 결합하고 싶은 진지한 소망”(a conscientious wish to bring about her union with him)을 드러내며 “자신의 지위를 바로잡기를”(to right her position, 144) 원한다. 루세타는 헨처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냄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알리며 그에게 보상을 요구한다.

저는 그녀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자 곧바로 제가 저지른 경솔한 실수로 제 이름 위에 거칠게 걸린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고 절실하게 느꼈어요. 당신이 제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청함으로써 말이에요. 저는 당신이 저와 같은 생각이길 바라고 또 당신이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래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어떤 처지인지, 또 우리가 헤어진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당신과 직접 연락하기 전에 일단 제가 먼저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겠다고 결심했어요.

As soon as I knew she was no more, it was brought home to me very forcibly by my conscience that I ought to endeavour to

disperse the shade which my *etourderie* flung over my name, by asking you to carry out your promise to me. I hope you are of the same mind, and that you will take steps to this end. As, however, I did not know how you were situated, or what had happened since our separation, I decided to come and establish myself here before communicating with you. (137)

루세타는 헨처드에게 자신이 캐스터브리지에 가도 되는지 묻지 않는다. 그녀는 헨처드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캐스터브리지에 가서 사는 방법을 지체 없이 선택하며 헨처드에게 “약속을 지키고”(carry out your promise) 그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take steps to this end, 137) 것을 당당히 요구한다. 이러한 적극성은 후에 그녀가 파프레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루세타는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며 기회를 포착하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화자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을 루세타의 몸과 비교하면서 두 인물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라이트(Wright)의 지적처럼 엘리자베스 제인이 밀(John Stuart Mill)의 저서에 열중해 있는 동안 “루세타의 마음은 어떤 의복을 선택할 것인가에 골몰해 있으며 그녀의 개성은 그 의복의 선택에 따라 정의 내려진다”(Lucetta finds her mind taxed and her personality defined by her choice of dress, 75). 루세타는 어떤 색의 의복을 입는가에 따라 다가오는 봄철 내내 “저 사람”(that person)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적으로 다른 저 사람”(that totally different person, 154; 본문 강조)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의복을 통해 매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입는 옷에 의해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는다.

부멜라에 따르면, “하디는 끊임없이 여성의 옷을 여성의 성적

자각과 통합시킴으로써 여성 몸의 일부분처럼 보이도록 만든다”(Hardy repeatedly remarks that women’s clothes seem a part of their bodies by virtue of their incorporation into the woman’s sexual awareness, 35). “진한 체리색”(deep cherry colour, 155)의 옷을 선택함으로써 “체리색의 인물”(the cherry-coloured person, 156)로 각인되는 루세타는 화려한 유혹자로 묘사된다. 캐스터브리지에서 처음 헨처드의 저택을 방문했을 때 “그런대로 관찮은 검정색 정장”(a respectable suit of black)이지만 “캐스터브리지의 잣대로 보기에다 확실히 유행에 뒤떨어진 의상”(decidedly old-fashioned even to Casterbridge eyes, 65)을 입었던 엘리자베스 제인과 달리 루세타는 작품 속에서 매춘부와 같은 평판을 받으며 비극적인 죽음에 이른다.

하디에게 여성의 옷은 중요한 의미화의 기제이며 끊임없이 해석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루세타의 신체는 매춘부 혹은 요부(coquette)의 몸짓을 지닌 몸으로 묘사되고 그녀의 존재마저도 그녀가 입는 화려한 의복으로 대체된다. 루세타의 육체와 그녀의 몸을 감싸는 붉은 의복은 하나의 상징처럼 제시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몸단장을 반복”(repeated her dressing with scrupulous care, 144)하는 모습은 그녀의 몸 자체보다 무엇을 입는가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 루세타가 실제 어떤 인물인가와는 별개로 그녀는 사람들에게 의해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는 여성으로 전시되며 치장과 술수에 능한 몸으로 각인된다. 그녀가 입었던 의상은 예쁜 의복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헨처드와의 과거 연애사를 비난하기 위한 조롱행렬에서 허수아비에게 입혀져 그녀에게 죽음에 이르는 충격을 주는 도구가 된다.

의복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루세타와 엘리자베스 제인이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한다면 이동성과 관련해서 이들의 몸은 각자 자신이 호기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활기를 띤다. 쉬지 않고 움직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루세타에 비해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은 정적으로

보이지만 루세타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보다 다른 이들의 안위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그녀만큼 쉽게 이동하지 못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제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실제로 작품 속에서 다양한 장소를 방문한다. 일례로 캐스터브리지에 수전과 함께 왔을 때 엘리자베스 제인은 헨처드를 찾는 일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킹스 암즈(King's Arms) 호텔에서 시장이 된 헨처드를 발견하고 스리 마리너즈 여관에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음식을 나르는 일을 맡아서 하며 수전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헨처드의 집을 방문한다. “캐스터브리지에 들어온 이후 이상하게도 연약하고 흥분한 듯 보이는”(since her entry into Casterbridge, had seemed strangely weak and agitated) 수전은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헨처드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알아볼 것을 요청한다. “그런 일에는 엘리자베스 제인 네가 더 알맞아”(You, Elizabeth-Jane, had better be the one to do it, 31)라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근처에 있는 나이든 남자에게 헨처드에 대해 묻는 엘리자베스 제인은 당차고 발랄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캐스터브리지 안을 바쁘게 돌아다닌다. 그녀는 나중에 수전의 소행으로 밝혀지는 익명의 쪽지로 인해 파프레와 더너버 언덕(Durnover Hill)의 곡물 창고에서 마주치는가 하면 수전의 묘지에서 루세타와 처음 만난다. 작품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집과 저택에 그녀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다. 헨처드가 21년 동안의 금주 서약을 깬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제인이 벌떡 일어나 외출복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Elizabeth-Jane jumped up, put on her things, and went out, 212)는 32장의 마지막 문장은 그녀의 민첩성을 보여준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파프레의 마당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상황을 관찰할 기회를 얻기 위해”(to get

an opportunity of observing the general position of affairs, 217) 헨처드의 일을 도우면서 주위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한다. 임시 공휴일 행사와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녀의 결혼식에서 파프레와 춤을 추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은 활기로 가득 차있다. 그녀는 외면적 활동성과 더불어 “내면적 활력이 넘쳐흐르는”(brimmed with an inner activity, 281) 여성이다.

이에 반해 하이플레이스 홀에서 처음에는 헨처드를, 그 이후에는 파프레를 기다리는 루세타의 몸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대기하는 무위의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그녀는 생산적인 일을 하기보다 널브러진 자세로 소파 위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죽인다. 자신을 구원해 줄 대상으로 남성을 바라보는 루세타는 “헨처드를 위해 몸단장을 하고”(dressed herself for Mr. Henchard) 한낮까지 그가 오지 않자 “오후 내내 계속해서 기다린다”(waited on through the afternoon, 142). 루세타를 포함한 대부분의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이 “남자 주인공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바느질하고, 이름도 없고 지정되지도 않은 ‘노동’을 하는”(sew on unnamed garments, do unnamed and unspecified “work,” to fill up the time before the entrance of the hero, Michie 40) 반면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이 원해서 혹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식을 습득하거나 일을 배운다. 그녀에게서 유독 자주 볼 수 있는 행동은 공부하는 것이며 빅토리아 시대의 다른 여주인공들과 달리 그녀가 노동하는 모습을 작품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빅토리아조 문학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비유와 여성의 신체에 대해 연구한 미키(Helena Michie)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이 재현되는 방식과 그 재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당대의 성적 이데올로기를 검증한 바 있는데, 이는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미키는 먹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동은 “여성의 신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was perceived as closely involving women’s bodies) 왔으며 “노동과 먹는 행위의 금지는 여성의 신체를 금지하거나 검열하는 한 방법이 된다”(banning work and eating becomes a way of banning or censoring the female body, 30)고 논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음식을 먹는 모습은 작품 속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헨처드는 딸이 일하는 것을 끔찍하게 혐오하며 이를 통제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은 아버지인 헨처드와 캐스터브리지 주민들의 시선으로 인해 움직임에 많은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는 몸이다. 그럼에도 엘리자베스 제인은 노동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몸을 움직인다. 이는 그녀의 지식욕과 맥을 같이 하며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열망의 일부이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대신 독립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육체성과 생기, 지력은 특히 황소를 대면하는 장면에서 강조된다. 루세타와 함께 황소를 피해 “미친 듯이 뛰면서”(run wildly, 190)도 “엘리자베스 제인은 상황을 파악하고”(Elizabeth-Jane took in the situation, 191) 빠르게 대처한다. 헨처드가 두 여성을 구해준 후 헨처드와 루세타 사이에서 소외되어 있던 엘리자베스 제인은 “쾌활하게”(cheerfully) “소리치면서”(cried)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그녀는 “사다리가 놓이길 기다리지도 않은 채”(without waiting for the ladder to be placed) “클로버 더미의 표면을 미끄러져 바닥으로 내려”(slid down the face of the clover stack to the floor)오고 루세타의 머프를 찾기 위해 헛간으로 “서둘러서 다시 간다”(hastened down again, 192).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와 용맹함으로 가득 차있다. 사실 그래픽 판의 엘리자베스 제인은 헨처드가 등장하기 전까지 직접 황소와 맞서 싸우며 현재 판본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강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두 여성 중 더 침착하고 강한 쪽에 속하는 엘리자베스 제인은 . . . 용기와 손재주의 결합으로 앞으로 뛰어나가서 코뚜레에 지팡이가 달린 황소를 붙잡는다. 그 짐승은 지팡이를 잡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이것이 훈육의 결과이리라) 소녀가 루세타에게 “클로버 더미 위로 올라가요!”라고 소리치는 동안 순간적으로 기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황소는 자신이 곧 약한 새로운 주인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이쪽저쪽으로 자신의 머리를 흔들며대기 시작하면서 엘리자베스를 그녀가 마치 갈대라도 되는 양 질질 끌고 갔다.

위험은 이제 임박해있었으며 황소가 그녀를 벽으로 한 번 밀치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임에도 그녀의 유일한 기회는 지팡이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었다.

Elizabeth Jane being much the cooler as well as the stronger [of the two women] had . . . by a combination of dexterity and courage, darted forward and seized the staff affixed to the bull. So accustomed had the animal been to obey the holder of the staff that for a moment - such is discipline - he seemed quite cowed, while the girl cried to Lucetta, 'Climb the clover-stack!' But the bull, soon finding that he was in new and fragile hands, began swaying his head this way and that, dragging Elizabeth with him as if she were a reed.

Her danger was imminent, and her sole chance lay in keeping the staff extended; while a thrust against the wall might probably have been the end of her. (342. 2)

이후 엘리자베스 제인은 순간적으로 지팡이를 놓고 재빨리 클로버 더미 위로 올라간다. 두려움에 휩싸여 함께 오르지 못한 루세타는 그녀에게 돌진하는 황소 앞에 놓이지만 그 순간 헨처드가 도착해서 황소를 진압한다(342.3).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픽 판의 엘리자베스 제인은 단순히 황소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 대항하며 분투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황소의 지팡이를 움켜잡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확실히 그녀의 용기와 지력을 강조했을 터이지만”(would certainly have emphasized her courage and resourcefulness, Dalziel 79) 이는 “여성다운 점잖음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희생하면서”(at the expense of conventional notions of womanly decorum)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픽 판 엘리자베스 제인의 “영웅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남자다운’”(heroic - and in some respects ‘manly’) 황소와의 사투는 작품의 선정적 요소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삭제되었지만 그녀의 강렬한 투쟁 또한 함께 사라졌다.

개정되기 전 판본의 여주인공만큼은 아니지만 그 강렬한 활기는 현재 판본의 엘리자베스 제인에게도 내재되어 있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움직임은 단순히 동적인 면만 지니고 있지 않고 혼자 사색하는 순간까지 담고 있으며 그녀가 홀로 하는 산책을 통해 드러난다. 헛간에서 머프를 찾고 난 후 “이런저런 생각 이후에 서둘러 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turned to hasten onward after her contemplation, 192) 그녀는 파프레가 모는 마차와 마주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강렬한 육체적 에너지는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황소를 대면했을 때 그녀가 보이는 의연함과 강인함, “끊임없이 책을 읽고 메모를 하며 지독한 근면함으로 세상사를 숙지해갈뿐 아니라 스스로 부과한 과제로부터 회피하지 않는”(read and took notes incessantly, mastering facts with painful laboriousness, but never flinching from her self-imposed task, 124) 모습은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이 결코

수동적이거나 정체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캐스터브리지의 다양한 공간은 엘리자베스 제인의 이동성을 담아내는 배경이 된다. 엘리자베스 제인을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그녀가 각 공간에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며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집에 엘리자베스 제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며 그녀의 영향력이 미미하지 않다는 점이다. 스리 마리너즈 여관, 헨처드의 저택에, 헨처드가 수전을 위해 마련한 작은 집, 루세타의 하이플레이스 홀, 헨처드의 저택 맞은편에 있는 작은 집, 헨처드가 자신의 저택을 떠나 거주하는 누추한 집, 그리고 원래 헨처드의 저택이었던 파프레의 집, 이 모든 곳에 엘리자베스 제인이 살게 된다. 그러나 그녀가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는 공간이 두 군데 존재하는데, 바로 폐허가 된 원형경기장과 “도시 뒷골목 빈민가로 캐스터브리지의 주거로는 최후의 수단”(a back slum of the town, the *pis aller* of Casterbridge domiciliation, 170)인 믹슨 레인(Mixen Lane)이다. 원형경기장은 수전과 루세타가 헨처드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는 장소이며 믹슨 레인은 헨처드와 루세타의 과거사를 폭로하기 위한 조롱 행렬(*skimmity-ride*)이 시작되는 곳이다.

헨처드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형경기장의 폐허에서 수전과 비밀리에 만난다. “캐스터브리지에서 원형경기장의 의미는 근대 로마에서 황폐한 콜로세움이 갖는 의미와 동일”(It was to Casterbridge what the ruined Coliseum is to modern Rome, and was nearly of the same magnitude, 67)하며 불길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원형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전과 헨처드, 루세타와 헨처드의 밀회는 정체불명의 쪽지로 인해 곡물저장소에서 마주쳤던 파프레와 엘리자베스 제인의 만남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 실제로 이 원형경기장에 왔던 수전과 루세타는 모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며 작품 속에서 제거된다.

이 작품에서 가장 독특한 지역으로 소개되는 믹슨 레인은 “주변 모든 마을의 아들람”(the Adullam of all the surrounding villages)이며 “곤경에 처한 사람, 빚진 사람, 기타 온갖 곤란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은신하는 곳”(the hiding-place of those who were in distress, and in debt, and trouble of every kind, 234)이다. 화자는 믹슨 레인을 캐스터브리지의 그림자와 같은 곳으로 묘사한다. 믹슨 레인은 캐스터브리지의 평온함을 돋보이는 역할을 하는 한편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준다. 헨처드와 루세타의 과거 밀회사를 알게 된 조프(Jopp)는 이곳 사람들과 함께 조롱 행렬을 준비한다. 사회의 밑바닥 계층이 모인 믹슨 레인에서 파프레와 헨처드, 루세타와 같은 상류 계층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평판에 흠이 가도록 비밀리에 행사를 계획하며 이로 인해 루세타는 추문에 희생된다.

원형경기장과 믹슨 레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엘리자베스 제인은 존재감을 드러낸다. 19세기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남성인물들이 식민지로 가는 종류의 광복의 이동을 하진 않으나 엘리자베스 제인이 가는 공간마다 그녀의 눈으로 서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공간의 의미가 변한다.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엘리자베스 제인이 각 공간을 어떻게 가고 느끼는지 알아보고자한다. 가장 자세하게 묘사되는 곳은 바로 하이플레이스 홀이다.

캐스터브리지에서 루세타가 자신이 머물 장소로 선택한 하이플레이스 홀은 “전체가 석조 건물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취향을 드러내는”(entirely of stone, and formed an example of dignity without great size, 130) 전형적인 저택이다. 이 저택의 외관과 위치상의 특징은 루세타의 성품을 반영한 곳으로, 화자에 의해 상세히 묘사된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집의 거실에서 시장이 내려다보인다는 점이다. 예비 입주자들은 저택의 방들 중 일부가 “시장을 내다보는”(overlooked the market-place) 전망을 “바람직하거나

점잖다고 여기지 않았기”(not considered desirable or seemly, 131) 때문에 루세타가 오기 전까지 이 저택에는 일이년간 아무도 살지 않았고 그 전에도 빈집일 때가 많았다.

다른 이들이 꺼려하는 이 저택의 지리적 특징을 루세타는 장점으로 여기며 이를 적극 활용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제인의 시선에서 하이플레이스 홀은 이중성을 지닌 곳으로 묘사된다. 이 저택을 처음 방문한 엘리자베스 제인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골목길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다. 게다가 저택의 뒷부분은 앞면과 달리 기괴하고 음흉한 가면이 장식되어 있어 루세타의 화려한 등장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인 최후를 암시하는 듯하다.

골목에 고정된 외판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자기가 방금 나온 문을 살펴보니, 그것은 아치 모양으로 아주 오래전, 집보다 더 오래된 것들이었다. 문짝에는 금속 장식이 달려 있고, 아치 꼭대기의 이맛돌은 가면 형태였다. 아직도 알아볼 수 있지만 원래의 가면은 코믹하고 음흉한 미소를 드러냈는데, 여러 세계에 걸쳐 캐스터브리지의 소년들이 가면의 벌린 입을 겨냥해 돌을 던진 결과 가면의 입술과 턱이 마치 질병으로 괴사된 것처럼 떨어져 나갔다. 그녀는 흐린 가로등의 깜박이는 불빛에 비친 너무나도 섬뜩한 그 외관, 자신이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마주친 불쾌한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다.

Looking round at the door which had given her egress, by the light of the solitary lamp fixed in the alley, she saw that it was arched and old—older even than the house itself. The door was studded, and the keystone of the arch was a mask. Originally the mask had exhibited a comic leer, as could still be

discerned; but generations of Casterbridge boys had thrown stones at the mask, aiming at its open mouth; and the blows thereon had chipped off the lips and jaws as if they had been eaten away by disease. The appearance was so ghastly by the weakly lamp-glimmer that she could not bear to look at it—the first unpleasant feature of her visit. (131)

엘리자베스 제인이 본 하이플레이스 홀의 광경은 캐스터브리지에서 가장 끔찍하고 수상한 공간이다. “질병으로 괴사된 것처럼”(as if they had been eaten away by disease) 턱과 입술이 떨어져 나간 가면이 달린 저택의 “너무나도 섬뜩한”(so ghastly) 외관은 그녀의 불안함과 불길함을 가중시키며 하이플레이스 홀에서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이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마주친 불쾌한 모습”(the first unpleasant feature, 131)은 하이플레이스 홀의 주인인 루세타의 고통스러운 최후에 관한 복선을 담고 있다.

하디는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정적인 여성상의 일부를 루세타에게 투영한다. 당대 사람들이 “여성의 불안정함”(woman’s instability)으로 여겼던 모습인 “허영심과 변덕스러움, 비밀을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통제할 수 없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경향”(her vanity, her inconstancy, her tendency both to keep secrets and to speak uncontrollably, Brady 88)과 같은 특징들이 바로 루세타에게서 나타난다. 질병으로 괴사된 것 같은 입술과 턱을 지닌 가면의 모습은 사람들의 주목과 동경을 받으며 자신을 뽐내다가 한순간에 죽음에 이르는 그녀의 몰락을 예견하는 듯하다. 평화로운 캐스터브리지의 뒤편에 막슨 레인과 같은 곳이 존재하며 시장의 아내가 된 그녀의 성공적인 로맨스 이면에 감추고 싶은 과거사가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듯이 하이플레이스 홀의 감추어진 면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과 큰 격차를 지니고 있다.

서술자는 하이플레이스 홀에 대해 그 어떤 곳보다도 상세하게 묘사한다. 그는 “이 특별한 저녁의 하이플레이스 홀 내부를 들여다보자”(view the interior of High-Place Hall on this particular evening, 140)고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하이플레이스 홀과 루세타의 몸을 살살이 파헤친다.

눈앞에 드러난 방에는 내실이나 작은 응접실처럼 예쁘게 가구가 배치되었고 두 개의 원통형 쿠션이 놓인 소파 위에 매력적인 여인이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다. 머리가 검고 눈이 커서 부계나 모계가 프랑스 혈통일 게 분명한 그녀는 나이가 엘리자베스 제인보다 몇 살 위로 보였는데, 눈동자가 반짝거리며 빛났다. 소파 앞의 작은 테이블에는 카드 한 벌이 앞면이 보이게 널려 있었다.

The room disclosed was prettily furnished as a boudoir or small drawing-room, and on a sofa with two cylindrical pillows reclined a dark-haired, large-eyed, pretty woman, of unmistakably French extraction on one side or the other. She was probably some years older than Elizabeth, and had a sparkling light in her eye. In front of the sofa was a small table, with a pack of cards scattered upon it faces upward.
(140)

루세타의 몸은 화자에 의해 누구보다도 자세히 묘사되며 노골적이고 끈질기게 화자의 시선은 그녀의 외형과 몸가짐에 주목한다. 루세타는 활력이 넘치고 언제나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하며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대한 널브러져 있던 루세타의 몸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고”(bounded up like a spring on hearing the door open) “무모할 정도로 강충대며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다가간다”(came across to her with a reckless skip). “프랑스 혈통일 게 분명한”(unmistakably French extraction, 149) 루세타는 요부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화자는 특히 하이플레이스 홀을 “음모”(intrigue, 131)와 관련지으며 모든 곳으로 연결되는, 즉 은밀한 움직임과 빠른 정보 습득이 가능한 곳으로 소개한다. 그러나 영리하고 처세에 능함에도 불구하고 루세타는 수전과 같이 급격한 죽음을 맞이한다.

브론펜의 지적처럼 루세타는 테스가 그러했듯이 “대중의 눈앞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비난 받으며 고통을 겪고 결국에는 사형선고를 받는다”(In the eye of the public she, rather than someone else, gets the blame, the distress, and ultimately the death sentence, 67). 이미 명예와 위신이 추락한 헨처드와 다르게 시장의 아내로 캐스터브리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여성이자 선망의 대상이었던 루세타는 순식간에 부정확한 여자로 낙인찍히며 비난받는다. 자신의 허수아비를 목격한 순간 그녀는 “죽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with a face pale as death) “그건 나야”(Tis me)라고 외치며 발작 상태에 빠진다. “루세타의 굳고 사나운 표정은 더욱 경직되고 난폭해져 가며”(the rigid wildness of Lucetta’s features was growing yet more rigid and wild) 그녀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온몸으로 표현된다. “그건 날 죽일 거야, 날 죽일 거야!”(it will kill me—kill me!, 259)라고 울부짖는 루세타의 모습은 그녀가 죽음에 이르도록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죽음을 앞둔 잔인한 상황에서 루세타의 화려한 의복은 그녀를 조롱하는 수단으로 변모한다. “나야, 그 여자는 나야, 양산까지, 내 초록색 양산까지 똑같아!”(She’s me—she’s me—even to the parasol—my green parasol!)라고 소리치는 장면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했던 의복과 장신구가 그녀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루세타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바닥으로 쓰러진”(stood motionless for one second—then fell heavily to the floor, 260) 다음 회복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한다. 다른 어떤 여성보다도 활기찬 모습으로 묘사되었던 루세타는 텍스트에서 단 몇 줄로 한순간에 제거된다. 루세타의 죽음은 조롱 행렬의 대상이 된 여성이 얼마나 치명적인 충격과 상처를 겪게 되는지 증명한다.

헨처드는 원형경기장에 자신을 만나러 온 루세타를 보면서 “그녀가 겪은 모든 곤경의 원인인 그 경솔하고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본성”(that thoughtless want of foresight which had led to all her trouble, 232)을 축은하게 여긴다. 헨처드는 루세타를 자신의 “첫 번째 여인과 꼭 닮은 사람”(the double of the first), 즉 수전의 현현으로 느낀다. 이는 엘리자베스 제인이 어머니의 묘지에서 루세타를 처음 보고 자신의 “유령”(wraith) 혹은 자신과 “꼭 닮은 사람”(double, 125)으로 느꼈던 것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루세타는 두드러지는 외양과 독특한 특성을 지녔으며 몇 안 되는 여성등장인물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수전이나 엘리자베스 제인의 모조품이나 대용품과 같은 존재로 작품에서 묘사된다. 그녀의 죽음은 테스의 죽음처럼 “독자들의 문학적 소비를 위한 동정의 대상”(an object of pity offered for the reader’s textual consumption, Pykett 161)으로 귀결된다.

왕족이 캐스터브리지를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 날 서술자는 루세타가 “자신이 아닌 남편의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날도 파프레가 아닌 그 누구의 상황에도 관심이 없었다”(living his part rather than her own, and cared for no one’s situation but Farfrae’s that day, 246)고 서술한다. 삶의 방향이 오로지 남편에게 집중된 루세타는 “남편과 함께일 때를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take

no pleasure in going anywhere except in her husband's company) 그의 부재를 견디지 못한다. 하이플레이스 홀에서 하염없이 파프레를 기다렸듯이 이제 그녀는 파프레와 자신의 저택에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집 안에 머무르면서 시간이 흐르길 기다린다”(remained indoors waiting for the time to pass till his return, 217).

엘리자베스 제인과 달리 루세타는 자기 자신을 잃고 파프레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진 생활을 한다. 그에게 모든 삶을 위탁한 루세타는 조롱 행렬에 의해 파프레가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될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다. 루세타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인물로 등장하지만 화려한 유혹자, 과거를 지닌 여성의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전 판본에 등장했던 엘리자베스 제인과 루세타를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여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디는 두 여성을 지나치게 인습적이고 다소 극단에 치우친 모습으로 묘사한다. 고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점부터 동시에 파프레를 사랑하는 면까지 루세타와 엘리자베스 제인은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전혀 다른 성향을 지닌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더 흥미롭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품 후반부에 이르러서 엘리자베스 제인은 뉴슨과 헨처드, 두 명의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여주인공이 된다. 과거에 그녀를 학대하고 혐오했던 헨처드조차 엘리자베스 제인의 “공감”(the sympathy, 279)이 바로 “그의 생존 자체에 필요”(necessary to his very existence, 280)할 만큼 그녀의 존재감은 커진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엘리자베스 제인은 “마나님다운 위엄”(matronly dignity, 306)이 있는 모습으로 파프레의 이륜마차를 타고 헨처드를 찾아 나선다. 이전에는 그 어떤 곳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던 엘리자베스 제인은 헨처드를 찾기 위해 황야를 헤치면서 간다. 비록 파프레와 함께 그의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지만 그녀는 “캐스터브리지를 떠나”(out of Casterbridge, 306) 새로운 장소로

향하며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은 이제 제한 없이 먼 곳까지 나아간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이 제한 없이 먼 곳까지 나아가는 모습은 그녀가 더 이상 이전에 묶여있던 속박에 매여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시장의 딸이나 시장의 아내와 같은 위치로 인한 사회적 제약과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가족이나 연인이 아닌 오직 그녀 본연의 모습으로 자연 속에서 헨처드를 찾는다.

헨처드는 가장 초라한 곳에서 엘리자베스 제인과 파프레가 오기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의 양아버지를 찾기 위해 더럽고 누추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한시도 망설이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애도하는 유일한 사람이며 그의 유언에 따라 장례를 집행한다.

파프레가 문기둥에 고삐를 땀고 그들은 초라한 거처 중에서도 분명 가장 초라한 그 집으로 다가갔다. 반죽된 점토로 만든 벽은 원래는 흙손으로 곱지장을 해 평평했으나 여러 해 빗물에 씻겨나간 낡은 표면은 울퉁불퉁하게 부스러지고 흠이 나 움푹 가라앉았으며, 잎이 무성한 담쟁이 줄기 하나가 무엇을 하려는 목적인지 알 수 없게 회색의 균열을 여기저기에 뭉쳐놓았다. 서까래는 가라앉았고 지붕을 엮은 이엉은 누더기가 되어 구멍이 뚫렸다. 울타리에 있던 나뭇잎이 출입구 구석으로 날아가 그곳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Farfrae hitched the reins to the gate-post, and they approached what was of humble dwellings surely the humblest. The walls, built of kneaded clay originally faced with a trowel, had been worn by years of rain-washings to a lumpy crumbling surface, channelled and sunken from its plane, its gray rents held

together here and there by a leafy strap of ivy which could scarcely find substance enough for the purpose. The rafters were sunken, and the thatch of the roof in ragged holes. Leaves from the fence had been blown into the corners of the doorway, and lay there undisturbed. (307)

헨처드가 생을 마감한 집은 “초라한 거처 중에서도 분명 가장 초라한”(what was of humble dwellings surely the humblest) 곳으로 묘사되며 곳곳에 황폐하고 무너진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가 살면서 겪었던 풍파와 심적 고통이 주름살처럼 패이고 부서지고 망가진 부분으로 가득한 이 “작은 집”(cottage, 307)의 모습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집은 엘리자베스 제인이 헨처드를 처음 발견했던 “캐스터브리지 최고의 호텔”(the chief hotel in Casterbridge, 31)인 킹스 암즈 호텔과 “가장 좋은 집들 중 하나”(one of the best, 59)였던 헨처드의 저택과 확연히 대조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헨처드의 번영과 몰락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캐스터브리지가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증인이다. 시장이 교체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대의 교체와, 더 나아가서 파프레의 새로운 농업용 기계가 대변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눈을 통해 묘사된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작품에서 대부분 조용한 은둔자나 관찰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초반과 후반부에서 그녀는 헨처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그의 행방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지니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자베스 제인은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과업을 짊어진다. 처음에는 먼 친척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에는 자신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헨처드를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한다. 뉴슨과 수전, 헨처드의 선택에 의한 삶의 변화를 감당해야했던 엘리자베스 제인은 점차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구축해 간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공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녔으며 공간의 주인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캐스터브리지의 많은 공간을 거쳐 가면서 그녀는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몸은 그녀가 머무는 장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력에 압도당하지 않는다. 캐스터브리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한된 이동성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식 탐구와 노동, 산책, 이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육체성을 주장하며 삶을 확장한다. 정체되어 있을 때에도 이동을 할 때에도 엘리자베스 제인은 주체성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캐스터브리지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방인이었던 그녀는 캐스터브리지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꾸린 여성이 되며 시장의 아내로 그 중심에 서게 된다.

하디는 엘리자베스 제인이 캐스터브리지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게 된 계기를 부유한 친척의 유산이나 지위가 높은 남자의 선택으로 만들지 않는다. 캐스터브리지에서 엘리자베스 제인의 정신은 언제나 독립을 추구해 왔으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겪은 그녀는 이곳에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올 인물로 작품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외부세계로의 진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공간 탐색의 여지는 적지만 캐스터브리지 내에서의 이동이 자신의 선택과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은 엘리자베스 제인의 이동성과 주체성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론

엘리자베스 제인은 수많은 상실을 겪는 여주인공이다. 친부인 뉴슨의 실종을 시작으로 그녀는 어머니인 수전을 잃는다. 헨처드의 부성애 역시 차갑게 식고 파프레의 애정도 무관심으로 바뀌며 두 남성의 애정이 모두 루세타에게 옮겨가는 것을 엘리자베스 제인은 바로 옆에서 목격한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루세타 또한 죽는다. 엘리자베스 제인은 결혼식 전에 헨처드가 떠나는 고통과 결혼식 이후 뉴슨이 떠나는 고통을 모두 감내한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그녀는 헨처드의 죽음으로 인해 오는 아픔까지 모두 감당하는 인물이다. 아버지를 찾는 엘리자베스 제인의 여정에는 상실감과 고통이 수반되지만 하디는 이를 통해 그녀가 자신을 찾아가며 여주인공으로 발돋움하도록 설계했다. 쇼윌터는 “정신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 이 소설에서 승리자는 엘리자베스 제인”(the moral as well as the temporal victory of the novel is Elizabeth-Jane’s, 113)이라고 말하며 작품 속에서 그녀의 존재를 인정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아버지 찾기와 결혼은 자아를 발견하고 억압되었던 욕망을 실현하는 여정이다.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제인은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대리적 로맨스에 만족하는 것에서 벗어나 로맨스에 대한 욕망을 자각하고 펼치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제인의 결혼은 중요성을 지닌다. 아버지를 찾는 것과 결혼하는 것이 맞물려있는 이유는 자신의 계보를 찾아 자아정체성이 분명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만남으로써 엘리자베스 제인의 독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친부로 믿고 있는 헨처드의 애정과 인정을 받고 난 이후 파프레와 로맨스적 관계로 연결되고, 파프레와의 결혼 역시 자신의 친부인 뉴슨을 찾는 후에 이루어진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벗어나 헨처드와의 어긋난 관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을 통해 엘리자베스 제인은 온전한 개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녀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필요를 다른 남성에게서 구하지 않는다. 즉, 엘리자베스 제인은 아버지와 남편을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다. 하디는 남성에게 의존하여 살기보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주인공으로 엘리자베스 제인을 부각시킨다.

하디는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의 여성인물을 통해 빅토리아 시대 여성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겪는 제약과 고통을 묘사하는 한편 젊은 여성인 엘리자베스 제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수전은 남편인 헨처드에 의해 매매되고 새 남편인 뉴슨마저 행방불명된 뒤 자신의 힘으로는 엘리자베스 제인에게 좋은 교육과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전남편을 찾아 캐스터브리지로 온다. 이른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고 한탄하며 아내를 두고 “저 여자는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The woman is no good to me, 11)고 외치는 헨처드의 강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수전이 여성으로서 겪었을 수치와 괴로움을 읽을 수 있다. 후에 다시 만난 수전과 헨처드가 오로지 자식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만 수전은 애정이 없는 결혼생활에서 힘없이 생활하다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한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엘리자베스 제인 역시 자유로웠던 시절을 뒤로 한 채 시장의 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다. 이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짐은 헨처드의 딸로 사는 것인데, 그녀는 자신의 젊음과 활기를 억제하며 살아간다. 하디는 부모 세대의 문제에 얽혀 헤매는 중에 있는 엘리자베스 제인과 그녀의 욕망이 끊임없이 좌절되는 순간을 묘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녀는 자신의 입지를 넓혀간다. 헨처드로부터 독립한 미혼의 엘리자베스 제인은 여전히 사회적 시선과 제약, 의무와 관습에 묶여있지만 아버지와 남편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지 않은 짧은 시기 동안 홀로 살아갈 힘을 기른다.

하디는 아무 말 없이 서로 거리를 두고 걷는 젊은 부부인 수전과 헨처드의 모습으로 소설을 열며 파프레와 엘리자베스 제인의 결혼으로 마무리한다.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에 등장하는 다양한 로맨스 중 엘리자베스 제인과 파프레의 결혼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수전과 헨처드, 수전과 뉴슨, 루세타와 헨처드, 루세타와 파프레의 관계에서 여성인물들은 평온함을 누리지 못한다. 파프레와의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루세타조차 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며 헨처드와의 과거사가 남편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떠다.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혼제도에 대해 하디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지만 엘리자베스 제인과 파프레의 결혼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엘리자베스 제인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말은 “책을 탐독하는 젊은 여성”(a young perusing woman, 286)이다. 하디는 다른 무엇보다 책을 통해 지혜를 익히고 자아성찰을 하며 자기 통제력을 지닌 여성으로 엘리자베스 제인을 부각시킨다. 엘리자베스 제인의 이타적인 모습은 자칫 그녀를 전통적인 여성상에 가둘 위험이 있으나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며 왕성한 지적 욕구를 지닌 그녀에게서 오히려 근대적인 여성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 이타심에 대한 라슨(Larson)의 다음과 같은 해석은 엘리자베스 제인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비록 이타심은 전통적인 빅토리아 시대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가치이지만 19세기 말의 신여성은 역설적으로 지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에 의한 자아실현을 통해 자기중심성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추구했다.

Although, selflessness was expected of the traditional Victorian woman, the late-century New Woman paradoxically seeks to

escape self through intellectual and emotional experiments in self-actualization. (Larson 58)

이전 판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디가 엘리자베스 제인의 성품을 현신적이고 모범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축소시키는 것 같지만 지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에 대한 그녀의 강렬한 욕망은 전통적인 여성상을 넘어 자아실현과 해방을 추구한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 욕망을 자각하며 인정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자아 탐색이 시작된다. 작품 속에서 엘리자베스 제인은 두 명의 아버지 중 누구를 자신의 계보로 편입시킬지 그 결정권을 손에 쥔 이례적인 여성이다. 헨처드의 억압 아래에서 떨던 소녀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주관이 뚜렷한 여성주체로 변모한다.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의 힘은 관습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근대성의 씨앗을 담고 있는 여주인공을 형상화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인 용 문 헌

Primary Text

Hardy, Thomas. *The Mayor of Casterbridge*. New York: Oxford, 2008.

『캐스터브리지의 시장』. 이윤재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Secondary Texts

장정희. 『토마스 하디 : 삶과 문학세계』.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1995.

Allen, Walter. “Afterword,” *The Mayor of Casterbridge*. New York: Signet Classic, 1950.

Bloom, Harold. *Thomas Hardy*. Chelsea House, 1987.

Boumelha, Penny. *Thomas Hardy and Women*. Sussex: Harvester, 1982.

Brady, Kristin. “*Thomas Hardy and Matters of Gender.*”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omas Hardy*. Ed. Dale Kramer. Cambridge: Cambridge UP, 1999. 93–111.

Bronfen, Elizabeth. “*Pay As You Go: On the Exchange of Bodies and Signs.*” *The Sense of Sex: Feminist Perspectives on Hardy*.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3. 66–86.

Bullen, John B. *The Expressive Eye: Fiction and Perception in the*

- Work of Thomas Hardy*. New York: Oxford UP, 1986.
- Dalziel, Pamela. "Whatever Happened to Elizabeth Jane?: Revisioning Gender in *The Mayor of Casterbridge*." *Thomas Hardy: Texts and Contexts*. Ed. Phillip Mallet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2. 64-86.
- . "Introduction". *The Mayor of Casterbridge*. Ed. Dale Kramer. New York: Oxford, 2008. xiii-xxxiv.
- Grossman, Julie. "Thomas Hardy and the Role of Observer." *ELH* 56.3 (1989): 619-638. Web. 23. Mar. 2017.
- Ingham, Patricia. "*Social Issues: Women and Society*." *Thomas Hardy*. New York: Oxford UP, 2003. 129-152.
- Jekel, Pamela. "*Elizabeth-Jane Newson*". *Thomas Hardy's Heroines: A Chorus of Priorities*. New York: Whitston Publishing Company, 1986. 131-143.
- Kiely, Robert. "Vision and Viewpoint in *The Mayor of Casterbridge*." *Nineteenth-Century Fiction* 23.2 (1968): 189-200. Web. 23 Mar. 2017.
- Larson, Jil. "Emotion, Gender, and Ethics in Fiction by Thomas Hardy and the New Woman Writers." *Ethics and Narrative in the English Novel, 1880 - 19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Michie, Helena. *The Flesh Made Word: Female Figures and Women's Bodies*. New York: Oxford UP. 1987.

- Miles, Rosalind. "*The Women of Wessex*", *The Novels of Thomas Hardy*. Ed. Anne Smith. London: Vision Press, 1979.
- Morgan, Rosemarie. *Women and Sexuality in the Novels of Thomas Hardy*. London: Routledge, 1991.
- Paterson, John. "'The Mayor of Casterbridge' as Tragedy." *Victorian Studies* 3.2 (1959): 151-172.
- Pykett, Lyn. "Ruinous bodies: Women and Sexuality in Hardy's Late Fiction." *Critical Survey* 5.2 (1993): 157-166. Web. 9. May. 2017.
- Short, Clarice. "In Defense of Ethelberta." *Nineteenth-Century Fiction* 13.1 (1958): 48-57.
- Schoenfeld, Lois Beth. *Dysfunctional Families in the Wessex Novels of Thomas Hardy*.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5.
- Showalter, Elaine. "*The Unmanning of the Mayor of Casterbirdge*." *Critical Approaches to the Fiction of Thomas Hardy*. Ed. Dale Kramer. London: Macmillan, 1979. 99-115.
- Sumner, Rosemary. *Thomas Hardy: Psychological Novelist*. New York: Macmillan, 1981.
- Vigar, Penelope. *The Novels of Thomas Hardy: Illusion and Reality*. London: Athlone Press, 1974.
- Wright, Terence R. *Hardy and the Erotic*. London : Macmillan, 1989.

Abstract

Female Subjectivity:
A Study on Thomas Hardy's
The Mayor of Casterbridge

Eunbi Ki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examine female subjectivity and self-realization by focusing on Elizabeth-Jane, the heroine in Thomas Hardy's *The Mayor of Casterbridge*. Instead of the Victorian's conventionally stereotyped passive woman, Hardy created a female figure who searches her father, achieves her romance and thereby expands herself. This thesis, by investigating how female independence and marriage are represented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patriarchal system, attempts to reread Elizabeth-Jane in a more integrated perspective.

The first chapter illuminates how Elizabeth-Jane solves the problem of finding her father and why it is important for her to establish her pedigree. Finding one's parent leads to finding one's identity. Elizabeth-Jane needs to find who she truly is. By this

process, she develops as an independent woman with discernment.

The second chapter concentrates on the romance plot between Elizabeth-Jane and Farfrae. To achieve her romance, it is essential for Elizabeth-Jane to overcome her disposition to deny her femininity and oppress her sexual desire. The failure of romance acts as a trigger for Elizabeth-Jane to live an independent life, and the final fulfillment of romance testifies to the fact that she is a desiring female subject.

The last chapter investigates Elizabeth-Jane's body and mobility. Her body seems to be stagnant but it vigorously moves inside Casterbridge. Elizabeth-Jane discovers her latent ability and potentiality by passing through various spaces in Casterbridge. Once being a foreigner, she becomes a woman capable of an independent life and ultimately finds herself standing at the center of Casterbridge as the mayor's wife.

In *The Mayor of Casterbridge*, Hardy unveils the restrictions and suffering of women in a patriarchal society on one hand, and embodies a heroine who seems conventional but embodies the seed of modernity on the inside by illustrating the actions of a young woman choosing her father and husband.

**keywords : Thomas Hardy, *The Mayor of Casterbridge*,
Elizabeth-Jane, women, subjectivity, independence,
romance, body**

Student Number : 2015-20047